

嶺南文化財研究

7~11





嶺南文化財研究院

The Y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718-912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221
전화: 054-971-8085 · 8086
전송: 054-971-8083 · 8090
E-Mail: ynmaster@ynicp.or.kr
홈페이지: <http://www.ynicp.or.kr>

<일러두기>

이 책은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제7~11회 조사연구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嶺南文化財研究』 7~11로 묶어 발간하였습니다.

<표지原字>

朝鮮 中宗 壬申刊本 『三國史記』에서 集字

嶺南文化財研究

7



1997. 11

社團
法人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표지原字〉

朝鮮 中宗 壬申刊本 『三國史記』에서 集字

嶺南文化財研究

第 7 輯

1997. 11

【遺蹟調查概報】

-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 發掘調查 …… 김창억·최봉인·박진·허정화·박상은 …… 5
- 慶山 林堂 F-Ⅱ 地區 周溝附建物址 …… 권태용 …… 43

【其他】

- 金屬遺物の 과학적 保存·復元처리 …… 장경숙 …… 67
- 浦項 玉城里古墳群 출토 顛甲의 復元 및 保存 처리를 중심으로 -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 發掘調査

김창억* · 최봉인** · 박진*** · 허정화**** · 박상은*****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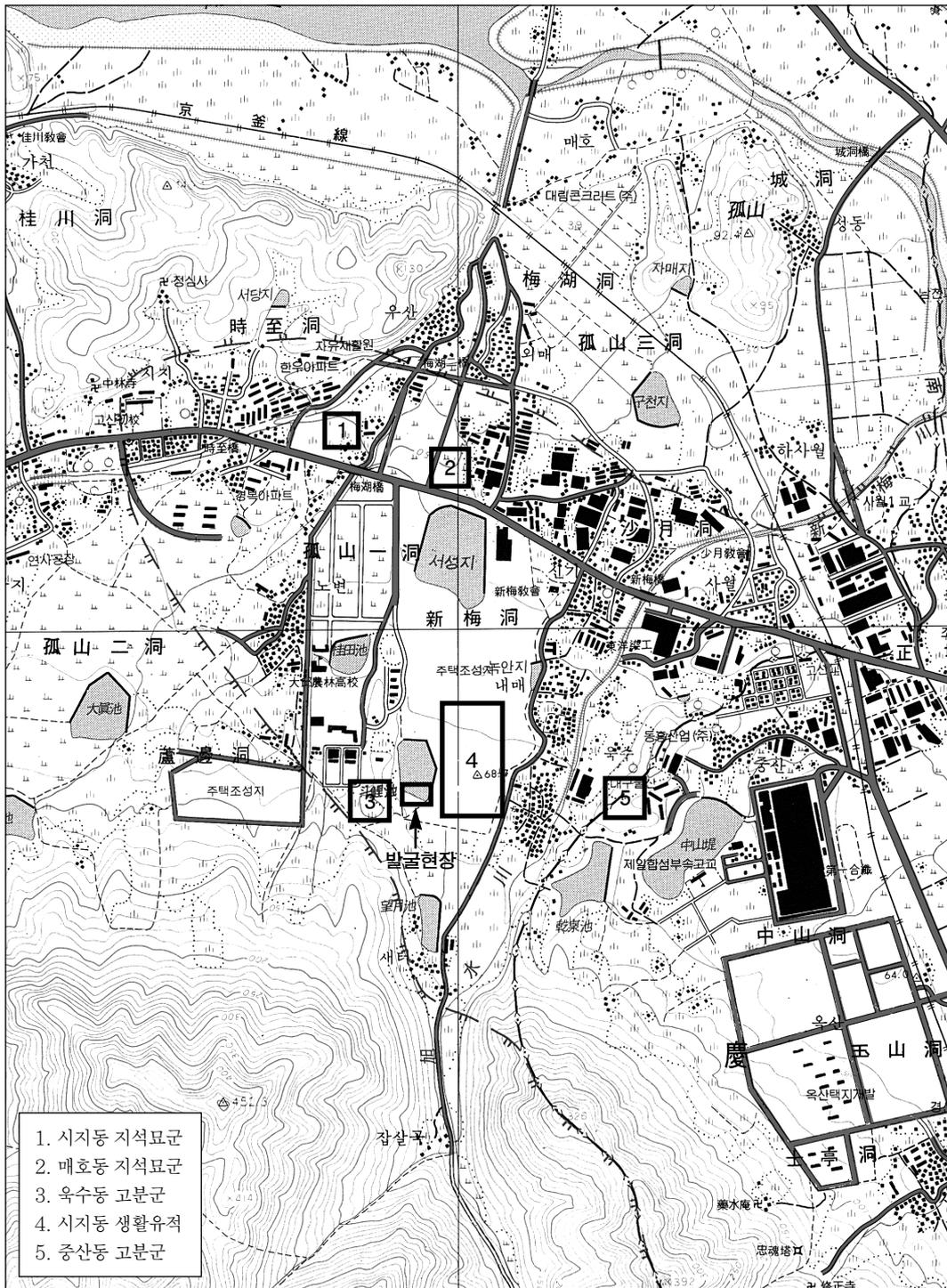
- | | |
|-------------|-------------------|
| I. 머리말 | 2. 유구의 현황 및 내용 |
| II. 調査方法 | 3. 유구속성 및 출토유물 현황 |
| III. 調査內容 | IV. 맺음말 |
| 1. 유적의 기본층위 | |

I. 머리말

이번 조사는 대구시 시지 택지개발지구내 발굴조사중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차 발굴조사로서 전체구역중 남서편 경계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10-158번지 일대의 약 3,240평이다.

조사기간은 1996년 7월 25부터 1997년 5월 20일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지동 취락유적의 전체범위중 서쪽경계 부분의 일부를 확인하게 되어서, 시지동 취락유적의 전체범위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7기의 수혈식석곽과 횡구식석실·횡혈식석실이 확인되어 기존에 조사되었던 옥수동고분군과 함께 이 지역의 묘제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 ** . *** . **** .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도 1〉 유적위치도(S=1:25,000)



〈도 2〉 고분군 배치도

Ⅱ . 調查方法

본 유적은 삼국시대 취락유적부분과 고분군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본 유적에 대한 발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발굴구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개지역(21·24G)에 대해서는 1차 발굴조사시에 사용한 그리드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역(25·26G)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계획상 구획된 블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발굴조사 순서는 전체 유적에 대하여 복토된 부분을 우선 제거하여 전체적인 유구의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취락유적 지역인 21·24G를 먼저 실시하고, 고분군 지역인 25·26G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하였다.

Ⅲ . 調查內容

1. 유적의 기본층위

〈표 1〉 유적의 기본토층

층 위	내 용	비 고
제1층	회갈색점토층, 갈색사질점토층 논·밭의 경작으로 유기물이 포함된 층	26G의 경우 3m이상 복토된 지역도 있음
제2층	황색산화층, 암갈색망간층 논의 경작으로 인하여 생긴 층	
제3층	암갈색사질점토층, 유구가 확인되는 층	
제4층	명황갈색 사질점토층, 기반층으로서 유구가 형성된 층	

2. 유구의 현황 및 내용

가. 그리드별 유구현황표

〈표 2〉 21·24그리드 유구현황표

내 용 그리드	수혈유구	주혈	건물지	구	기 타
21(66B)	4	61	.	.	.
24(67B)	5	160	5	2	.
계	9	221	5	2	.

〈표 3〉 25 · 26 그리드 유구현황표

그리드 \ 내 용	수혈식 석곽	횡구식 석실	횡혈식 석실	응 관 묘	기 타	계
25(65B)	160	9	23	6	19	217
26(64B)	37	4	6	7	10	64
계	197	13	29	29	31	281

21·24G의 유구는 전체적으로 삼국시대의 취락유적으로서 수혈유구, 기둥구멍, 지상건물지, 구 등의 유구가 확인된다.

나. 유구의 내용 및 특징

1) 수혈식석곽묘

총 197기가 조사되었는데, 석곽의 크기는 길이 100~400cm, 폭 50~100cm, 깊이 30~100cm 정도이다. 벽축조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할석을 이용한 평적기법으로 가로쌓기(횡평적) · 세로쌓기(종평적)를 한 것.

둘째, 세워쌓기(입수적)와 눕혀쌓기(와수적)를 혼용하여 한벽면을 세워쌓기한 후 상면에 할석을 평적한 것.

셋째, 첫째방법과 둘째방법을 혼용한 것이 있다.

유구의 전체적인 배치는 등고선과 평행한 것과 직교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① 155호 석곽(사진 3-② · ③)

석곽의 규모는 길이 358cm, 폭 85cm, 깊이 80cm이며, 장축방향이 남-북(N-15 -E)인 수혈식석곽묘이다. 141·142호와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다. 벽석 축조는 편평한 할석을 눕혀쌓기한 후 그 위에 할석을 가로쌓기하였다. 양단벽의 판석은 장벽사이에 끼워진 ‘표’상이며, 남단벽의 상부 할석들은 모서리를 말각처리하였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양단벽에 유물을 매납하고 석곽중앙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관의 규모는 길이 145cm, 폭 38cm이며, 관의 중앙에서 3점의 단경호가 바닥보다 6cm 정도 높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는 목관의 목개위에 매납하였던 유물로 판단된다. 특히 155호 석곽묘에서는 북단벽쪽에 금동제이식 1쌍이 확인되어 피장자의 침향이 북향임을 알 수 있다. 유물은 북단벽에 대부장경호류와 고배 등이 남단벽에는 등자 1쌍, 재갈,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② 158호 석곽(사진 4)

조사구역의 서편경계지점의 남쪽에 위치하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410cm, 폭 100cm, 깊이 70cm이다. 장축방향이 남북이며,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수혈식석곽묘이다.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도굴의 흔적도 없었다. 장벽의 축조는 편평한 할석을 각각 6매 눕혀쌓기한 후 할석

을 가로쌓기 하였고, 단벽은 1매의 편평한 할석을 얹혀쌓기한 후 그 위에 할석을 가로쌓기 하였다. 석곽내부에서 목곽을 설치한 흔적으로 보이는 회백색점토띠가 석곽내부에 5~10cm 정도의 폭으로 확인된다.

유물은 대호, 단경호, 대부장경호, 고배, 소형완, 등자, 재갈, 철검,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③ 176호 석곽 (도 3, 사진 5-①·②)

조사구역의 서편경계지점에 위치하며, 석곽의 규모는 길이 400cm, 폭 91cm 깊이 70cm이다. 장축방향이 남북이며,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수혈식석곽묘이다. 호석이 유구의 동·남·북편 3면에서 확인되고, 서쪽부분은 조사경계지역의 밖이어서 확인을 못한 상태이다. 확인된 호석은 지형상 낮은 쪽에 위치하며, 2~3단으로 축조하고 호석의 외부에는 구가 형성되어있다. 개석은 상부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나, 내부조사중 남단벽에 접해서 1매의 개석이 부러진 상태로 확인되었다. 석곽내부에는 암갈색점토가 채워져 있다. 벽석축조는 편평한 할석을 세우고 그 위에 할석을 2~5단정도로 가로쌓기를 하였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관·곽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구로서 석곽내부 바닥면에서 관·곽으로 추정되는 목질이 확인되었고, 추정목관바닥판재 위에서 수하이식 1쌍이 확인되었으며, 목곽내부 유물들은 바닥판재위에서 확인되고 있다. 유물은 양단벽쪽에 위치하는데, 남단벽의 유물은 목곽내 매납으로 유물아래에서 목질이 확인된다. 또한 석곽과 목곽사이에 채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회백색점토가 남단벽까지 확인되고 있어 목곽내 매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단벽쪽에는 고배, 대형 단경호, 장경호 등이 2단으로 포개어서 매납되어 있었는데, 목곽밖에서 출토되었다.

④ 196호 석곽(사진 5-③)

석곽의 규모는 길이 270cm, 폭 70cm, 깊이 50cm이다. 장축방향이 북서-남동향이고,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수혈식석곽이다. 197호와 나란히 위치한다. 3매의 개석이 남단벽쪽에 얹혀 있으며, 개석과 개석사이에 할석과 천석을 이용하여 막음하였다.

벽석은 천석을 주로 이용하여 가로쌓기를 하였으며, 네모서리는 말각처리하였다. 개석의 함몰로 인해 석곽중앙의 상부벽석들중 일부가 내부로 함몰되어 있다. 시상은 직경 10cm미만의 천석을 이용하여 2단으로 설치하였고, 유물이 부장된 남동단벽에는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단경호, 고배, 대부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2) 횡구식석실분

총 13기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나, 잔존상태가 좋지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석실의 규모는 길이 200~400cm, 폭 50~100cm, 깊이 10~80cm 정도이고, 횡구부는 대부분 남쪽과 동쪽의 단벽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① 103호 횡구식석실(도 5, 사진 7-①)

석실의 규모는 길이 270cm, 폭 108cm, 높이 86cm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이

북서-남동인 횡구식석실이다. 상부벽석의 일부가 내부로 함몰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개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는 암갈색점토가 채워져 있으며, 입구는 남동단벽으로 벽전체를 입구로 사용하고 있다. 네벽은 할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1~2단은 세로쌓기를 하고, 3단부터 가로쌓기를 하였는데, 3단부터 네모서리가 서로 맞물려서 축조되었다. 시상은 우벽에 붙어서 길이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하였고, 천석과 점판암편, 토기편 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추가장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물은 단각고배, 연질호, 대부완 등의 토기류와 철촉, 철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3) 횡혈식석실분

총 29기가 조사되었으며, 연도부방향에 의해 두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연도부가 남쪽에 위치하는 유구로서 전체 조사유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둘째, 연도부가 동쪽에 위치하는 유구로서 전체 조사유구 중 65호, 84호, 104호 3기만이 확인되었다.

연도의 위치에 의하여 분류하면 중앙에 있는 것이 1기, 좌벽쪽에 있는 것이 5기, 우벽쪽에 있는 것이 23기이다. 연도부의 방향이 동쪽인 것은 모두가 좌편연도이고, 연도부가 남쪽인 것은 모두 우편연도이다.

① 104호 횡혈식석실(사진 6)

유적의 중심에서 북서편에 위치하며, 규모는 전벽길이 150cm, 후벽길이 130cm, 좌벽길이 205cm, 우벽길이 170.5cm, 높이 80cm이다. 현실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석실이다. 봉분이나, 호석은 확인되지 않고, 석실벽석·천정석일부가 석실내부로 함몰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석실의 길이방향은 북서-남동이다. 벽은 할석을 주로 사용하여 넓혀 쌓았는데, 1~2단은 세로쌓기로 하고, 3단부터 가로쌓기를 하여 벽면이 내경하도록 하였다. 벽석은 5~6단정도 남아있다. 시상은 생토면 위에 자갈돌과 소형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후벽과 나란하게 1차 시상을 축조하고, 우벽과 나란하게 2차시상을 축조하였다. 연도부는 동쪽에 위치하며, 편평한 할석 1매로 막음하였고, 이 1매의 판석은 현실 바닥면보다 10cm정도 높으며, 연도부 좌·우벽석 또한 현실에서 연도로 빠지면서 높이가 올라간다.

104호 석실은 104-①·②·③호의 제사유구가 확인되고 있다. 104-①호는 연도부 남동쪽에 위치하며, 대호내부에 소형완, 연질호, 단각고배를 넣은 것으로 대호의 동체상부는 결실되어 저부와 내부매납토기만이 확인되고 있다. 104-②호는 부정형부장곽으로 석실 북동편에 위치하며 부정형의 수혈을 굴착한 후 할석을 세우고 대부장경호, 단경호를 매납하였다. 104-③호는 101호의 동단벽을 파괴하고 위치하는데 도광이 확인되지 않고, 대부완 1점이 확인되었다. 이 세 유구는 봉분내에 위치했던 제사유구로 추정되어져 봉분의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물은 1차시상에서 대부호, 단각고배, 대부장경호등이 나왔고, 2차시상에서는 단각고배 세트, 유개합, 대부호, 도자, 이식 1점 등이 출토되었다.

② 122호 횡혈식석실(도 4)

유적의 남서편에 위치하며, 석실의 규모는 전벽 150cm, 후벽 260cm, 우벽 400cm, 좌벽 275cm, 높이 50cm이다. 연도는 현실의 남쪽에 위치하며, 4차에 걸친 추가장이 이루어졌다. 1차 시상은 할석을 2단으로 쌓고 그 위에 전체적인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자갈돌을 약 5cm 정도 깔았다. 높이는 약 30cm 정도로 높은 편이며, 후벽과 나란하게 축조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장경호 2점, 철탁 2점, 도자 1점 등이 나왔다. 2차 시상은 좌벽면에 접해서 1차 시상과 직교되게 길이 140cm, 폭 80cm, 두께 15~20cm 정도되게 축조하였다. 출토유물로는 단각고배 3점, 뚜껑 2점, 적색연질발 1점 등이 있다. 3차 시상은 좌벽면에 접해서 1차시상과 나란하게 길이 150cm, 폭 50cm, 두께 15cm 정도되게 2차 시상의 북쪽부분위에 축조하였다. 출토유물로는 고배, 대부완, 뚜껑, 마탁(청동)등이 나왔다. 4차 시상은 우벽면에 접해서 1차시상과 직교되게, 2차 시상과는 나란하게 축조하였다. 출토유물은 단각고배세트 4점, 도자 1점이다.

③ 208호 횡혈식석실(사진 7-②)

현실의 규모는 전벽길이 135cm, 후벽길이 215cm, 좌벽길이 250cm, 우벽길이 350cm, 높이 30cm이며, 연도부는 길이 125cm, 너비 70cm, 높이 36cm이다. 현실의 평면형태가 방형인 횡혈식석실이다. 봉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석실의 서쪽부분과 남·북쪽부분의 일부에서만 주구가 확인된다. 석실의 상부벽석과 천정석은 확인되지 않고, 현재 1~2단의 벽석만이 잔존하고 있다. 1단은 세로쌓기를 하고 2단부터는 가로·세로쌓기를 같이 하였다. 연도부는 현실남동편에 위치하며, 폐쇄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상은 2차 시상까지 확인이 되는데, 1차시상은 후벽과 나란히 하였고, 강돌을 이용하여 2단으로 축조하였다. 유물은 시상 북편에 매납되어 있다. 2차 시상은 우벽에 접해서 나란하게 축조한 것으로 1차시상과 직교한다. 2차 시상의 서편이 1차시상 북동장벽을 일부 덮고 있어, 추가장의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208호는 주구내에 208-①호인 판석조석곽 1기와 봉토내로 추정되는 208-②호인 합구식 옹관묘 1가 있다.

4) 옹관묘

총 8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25그리드의 경우 75호, 옹관1·2호를 제외한 2기는 3호와 관련된 배장묘성격이다. 5기 모두 합구식이며 굴광내에 소형토기를 1~2점씩 매납하고 있다. 75호(도 6, 사진 7-③)는 석곽을 짠 후에 옹관을 안치하였으며, 개석도 확인이 되었다.

5) 출토유물

유물은 지표채집품과 21·24·25·26그리드에서 출토된 유물이 있다. 21·24그리드의 유물은 취락에 관계되는 유물로서 대부분이 삼국시대의 적색연질토기편이고, 25·26그리드에서는 대부장경호, 부가구연장경호, 고배, 단각고배, 단경호, 적색연질발 등의 각종 토기류와 철촉, 철검, 철탁, 철도자, 등자, 재갈, 유자이기 등의 철기류 그리고 금동제 이식, 은제이식, 곡옥, 경식 등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표 4〉 25 · 26그리드 출토유물 현황표

그리드 \ 종류	토 기	철 기	장 신 구	기 타	계
25G	2,797	468	85	66	3,416
26G	562	52	8	4	626
계	3,359	520	93	70	4,042

3. 유구속성 및 출토유물 현황

〈유구속성표 및 출토유물현황표〉

연 번	유구 번호	구조	규격(cm)			출 토 유 물					시대	비 고
			장축	단축	깊이	토 기	철 기	장신구	기타	계		
1	25G-1호	횡혈식	280	172	25						삼국	
2	2호	횡혈식	265	205	21	고배1, 적연파수부배1	철촉1, 철물2		어망추1	6	''	
3	3호	수혈식	220	70	67	고배1, 유개고배6, 단각고배3, 유개단각고배1, 뚜껑1, 단경호1, 부가부연장경호1, 유개연질고배1, 적연뚜껑1, 적연단경호1			방추차1	18	''	
4	3-1호	옹관묘	70	26	10	파수부용1, 적연용2				3	''	
5	3-2호	옹관묘	70	30	15	용2				2	''	
6	4호	횡혈식	210	205	41	고배3, 유개고배6, 뚜껑4, 단경호1, 광구호1, 광구 소호1, 적연호2, 적연소호1	도자1, 철촉2			22	''	
7	5호	횡혈식	230	160	50	유개고배2, 단각고배2, 유개단각고배1, 뚜껑1, 단경호1, 파수부호1, 연질단경호1	철촉2		방추차1	12	''	
8	6호	수혈식	130	35	35	광구호1, 파수부배1	철물2			4	''	
9	7호	횡구식	135	85	40	연질호1	철촉1			2	''	
10	8호	횡혈식	225	230	13	단각고배2, 뚜껑2, 연질단각 고배6, 적연호1, 토기편일괄	도자1, 철촉2, 철탁1, 철검1, 유자이기1		방추차1	18	''	
11	9호	횡혈식	220	170	8	고배2, 단각고배1, 뚜껑2, 부가부연장경호1, 대부완1, 연질호1, 토기편일괄	도자1			9	''	
12	10호	횡구식	224	120	30	단각고배8, 뚜껑5, 단경호1, 부가부연장경호1, 적연고배1, 적연발1, 적연완1, 토기편일괄	도자3, 철탁1, 철검1, 철물1		방추차1	25	''	
13	11호	수혈식	97	35	32	파수부호1				1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4	12호	수혈식	290	26	25	완1,연질발1				2	삼국	
15	13호	횡혈식	230	220	31	고배9,유개고배4,뚜껍8, 대부호1,광구호1,연질삼 이부호3,적연고배1,적연개5	도자4,철검1, 이형철기1	이식 3점		36	"	
16	13-1호	토기군	25	20	13	토기편일괄					"	
17	14호	횡구식	270	86	42	고배6,유개고배5,뚜껍2, 단경호1,부가구연장경호1, 대부완1,연질호1,연질옹1, 적연유개고배1			방추차1	19	"	
18	15호	수혈식	240	42	45	고배1,유개고배2,대부 장경호1,적연호2,적연완2				8	"	
19	16호	수혈식	325	66	93	고배3,유개고배1,뚜껍1, 대부호1,부가구연장경호1, 대부직구호1,적연고배1, 유개적연고배3	도자1,철물2, 유자이기1, 이형철기2	이식2		20	"	
20	17호	횡혈식	172	157	52	고배1,단각고배10, 유개단각고배2,뚜껍10, 대부호1,대부완1,적연발2, 토기편일괄	도자1,철촉1, 철검1, 유자이기2			32	"	
21	17-1호	수혈식	85	30	31	단각고배1,연질발1,적연호1				3	"	
22	17-2호	토기군	120	60	8	단각고배2,토기편일괄				2	"	
23	18호	수혈식	257	61	78	단각고배5,단경호1,부가 구연장경호2,파수부호1, 대부호1,적연발1	도자2, 유자이기1			14	"	
24	18-1호	토기군	150	40	3	토기편일괄			뼈2	2	"	
25	18-2호	토기군	57	42	41	단경호1,호1				2	"	
26	19호	횡혈식	210	190	35	고배3,유개고배2,단각고배1 뚜껍4,평저단경호1, 연질파수부옹1	도자1,철물1, 철촉1		소토구1, 인골편	16	"	
27	20호	횡혈식	210	200	37	고배5,유개고배2,뚜껍4, 직구호1,대부호2,대부완1, 적연옹3,토기편일괄	철물1			19	"	
28	21호	수혈식	72	32	32	단각고배11,유개단각고배1, 뚜껍4,단경호2,파수부배1, 대부완1,적연옹1, 토기편일괄	철정1			22	삼국	
29	22호	수혈식	234	92	45	단각고배4,유개단각고배5, 뚜껍3,단경호1, 적연단경호1,적연완1	검형철기1			16	"	
30	23호	수혈식	314	76	21	단각고배1,대부호2, 토기편일괄			방추차1	4	"	
31	24호	수혈식	165	53	34	홍도1				1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32	25호	수혈식	258	35	38	고배2, 유개고배2, 뚜껑1, 장경호1, 대부장경호2, 대부호1, 연질파수부호1, 연질용1, 연질호1, 토기편일괄	철탁3, 철정2, 철물1, 불명철기1			19	삼국	
33	26호	수혈식	155	53	34	고배2, 대부장경호3, 연질용2	도자1			8	"	
34	27호	수혈식	277	44	46	고배5, 유개고배3, 뚜껑1, 대부장경호3, 부가구연장경호1, 파수부호1, 삼뉴부호1, 적연용1	철촉1			17	"	
35	28호	수혈식	310	60	73	고배9, 유개고배2, 뚜껑1, 대부장경호7, 부가구연장경호1, 대부완1, 연질뚜껑1, 연질용3	도자2			27	"	
36	29호	횡구식	195	80	39	평저호1				1	"	
37	30호	수혈식	200	60	54	단각고배1, 유개단각고배2, 뚜껑1, 단경호2, 대부장경호1, 적연단경호1, 적연파수부배1	도자1, 철촉편1	이식1		12	"	
38	31호	수혈식	230	77	34	유개단각고배4, 대부장경호3, 부가구연장경호1, 토기편일괄	철검1, 철촉1	이식2		12	"	
39	32호	횡혈식	310	300	37	단각고배1, 뚜껑3, 적연단각고배1, 적연뚜껑1, 적연발1, 토기편일괄	철물1		방추차2	10	"	
40	33호	수혈식	225	40	30	고배3, 유개고배3, 뚜껑2, 대부장경호2, 호1, 연질고배1, 연질용1	철검1		방추차1	15	"	
41	34호	횡혈식	208	207	44	단각고배6, 유개단각고배1, 뚜껑5, 단경호1, 부가구연장경호1, 갈색파수부발1, 토기편일괄	도자4, 철촉1, 철편1, 유자이기2		은제 이식1	24	"	
42	34-1호	토기군	28	15	6	적연발1				1	삼국	
43	35호	수혈식	230	60	24	유개고배1, 뚜껑1, 부가구연장경호1, 평저단경호1, 적연고배1, 적연단경호1, 적연양이부호1	도자1, 철정1, 철물1		방추차1	11	"	
44	36호	수혈식	286	61	57	유개고배1, 단경호1, 대부장경호3, 파수부배1, 유개소형파수부배1, 유개삼이부호4, 소형발1, 유개연질고배1, 유개적연고배2	검형철기1, 유자이기1			13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45	37호	수혈식	293	69	45	고배3,대부호1,적연호1	도자1,철검1,철물1,철촉군	이식3		12	삼국	
46	38호	수혈식	268	50	79	고배1,유개고배7,단경호1,대부장경호2,부가구연장경호2,소형완1,연질용1,적연용2,적연배1	철검1,철부1	이식1		21	"	
47	39호	수혈식	142	38	35	고배1,유개고배3,뚜껑1,대부호2,적연호1	도자1,철검1,철촉3	이식2		15	"	
48	40호	횡혈식	205	203	60	유개단각고배6,적연발1	도자3			9	"	
49	41호	수혈식	300	75	69	유개단각고배6,대부장경호1,부가구연장경호3,파수부호1,대부호1,연질파수부호1,적연파수부호1,적연호1,적연발2	유자이기1,방추차1			17	"	
50	42호	횡혈식	205	190	66	단각고배2,유개단각고배2,뚜껑2,부가구연장경호3,적연발1,토기편일괄	철촉10,철물3,철정1,철기1		방추차	26	"	
51	43호	횡혈식	175	220	59	단각고배8,뚜껑7,단경호1,광구호1,파수부호1,대부병1,완1,적연발2	철기1,철탁3,철령2,철촉1,유자이기2		방추차4,인골3,두개골2	35	"	
52	43-1호	토기군	62	31	6	토기편일괄					"	
53	44호	수혈식	180	65	42	유개단각고배2,유개합2,편병1,토기편일괄	철편1			6	"	
54	45호	횡혈식	270	190	24	단각고배10,유개단각고배1,뚜껑9,호1,대부호1,대부완1,적연단각고배1,적연뚜껑1,적연발5,적연완1,적연대부합1,유개적연대부합1,토기편일괄	도자1,철촉1,철검2,철물2		방추차1	40	"	
55	46호	수혈식	135	30	40	단경호1,적연발1				2	"	
56	47호	수혈식	100	25	40	단각고배2,대부장경호1,적연발1,토기편일괄	철촉1			5	삼국	
57	48호	수혈식	220	100	55	고배1,뚜껑1,유개단각고배5,단경호1,부가구연호1,호1,적연호1,적연발1	철부1,철촉2,철탁4			21	"	
58	48-1호	수혈식	105	65	22						"	
59	49호	수혈식	257	55	68	단각고배1,유개단각고배7,뚜껑1,부가구연장경호2,대부완1,적연호2,적연발1	도자1,철촉2,철검1	이식2		21	"	
60	50호	횡구식	200	65	32	단각고배1,유개단각고배3,뚜껑1,단경호2,적연발1				8	"	
61	51호	횡구식	215	80	15	단각고배4,부가구연장경호1,적연발1,토기편일괄			방추차1	7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62	52호	수혈식	285	72	60	유개고배4,대부장경호5, 파수부호1,적연호1	철축1		방추차1	13	삼국	
63	53호	수혈식	255	55	45	고배4,대부장경호5,양이부용1,적연발1,적연완1	철축1	이식1		14	"	
64	54호	수혈식	280	70	45	고배3,대부장경호1,대부완1,적연호1	도자1	이식2		9	"	
65	55호	수혈식	184	50	62	고배1,유개고배2,뚜껑1,단경호1,대부장경호1,부가구연장경호1,적연단경호1	철령1	대환이식1,경식1	방추차1,인골1	13	"	
66	56호	수혈식	315	50	54	유개단각고배4,대부장경호2,대부완2,적연단경호1,적연호1,적연파수부용1	도자1,철축2,유자이기1,철기1	이식1쌍		18	"	
67	57호	수혈식	330	70	72	고배4,유개고배6,뚜껑3,대부장경호4,연질뚜껑1,연질단경호1,연질파수부용1,적연호1,적연파수부용3	도자3,철축1,격쇠2,철탁3,유자이기1	금동관1	방추차1,마제석,검병부1	37	"	
68	58호	수혈식	415	85	80	유개고배1,단각고배5,유개단각고배6,뚜껑6,단경호1,대부장경호1,대부완2,부가구연장경호3,양이부호2,적연파수부호3,토기편일괄	도자2,겸형철기1,철축1,철물1			36	"	
70	59호	수혈식	172	36	45	단각고배1,대부장경호1,부가구연장경호1,소호1,적연발1,적연호1,토기편일괄	도자2			8	"	
71	60호	수혈식	265	50	61	단각고배1,유개단각고배3,뚜껑1,대부장경호3,부가구연장경호2,적연발3,적연용2	도자1			16	"	
72	61호	수혈식	185	65	52	유개단각고배2,대부장경호2,적연발1				5	"	
73	62호	횡혈식	190	220	53	단각고배1,유개단각고배4,대부호1,부가구연장경호1,발형기대1,시루1,적연호1,적연발2,토기편일괄	도자1,격쇠1,겸형철기1,철축1,철물3,철기1			20	"	
74	63호	수혈식	220	70	65	고배3,유개단각고배1,뚜껑1,대부장경호1,부가구연장경호2,적연호1,적연발1,적연파수부호1	도자1	이식2		14	"	
75	64호	수혈식	32	70	60	고배2,단각고배1,유개단각고배8,뚜껑4,단경호1,대부장경호1,완1,적연단경호2,적연파수부호1	도자1,철축1,유자이기1	세환이식3		27	"	
76	64-1호	토기군	90	50	5	단경호1,부가구연장경호1,토기편일괄				2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77	65호	횡혈식	230	130	51	고배18, 유개고배5, 뚜껍8, 단경호2, 대부장경호3, 대부완2, 완1, 부가구연장경호1, 연질고배1, 연질뚜껍1, 적연뚜껍1, 적연호2, 토기편일괄	도자6, 철축2, 유자이기1, 철탁3, 철물1	금장이식1, 금동이식1, 이식1		61	삼국	
78	66호	수혈식	110	90	22	호2, 적연발1, 토기편일괄				3	"	
79	67호	수혈식	253	50	34	고배1, 뚜껍3, 단경호1, 대부장경호2, 적연완2, 적연용1, 적연광구소호16			방추차1	27	"	
80	68호	수혈식	94	40	31	대부장경호1, 적연호1				2	"	
81	69호	수혈식	230	43	45	대부장경호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1			3	"	
82	70호	수혈식	247	48	26	뚜껍1, 대부호1, 연질호2, 적연호1, 적연파수부호2, 토기편일괄	철물1	이식1		9	"	
83	71호	수혈식	322	86	38	고배2, 단각고배2, 유개단각고배3, 뚜껍3, 대부호1, 직구호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3, 철축1, 철검1, 유자이기1, 검형철기1			20	"	
84	72호	수혈식	340	80	66	고배1, 단각고배4, 뚜껍4, 부가구연장경호2,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1, 철축1, 유자이기2, 꺾쇠1, 철물1	이식2		20	"	
85	73호	수혈식	130	51	56						"	
86	74호	수혈식	165	35	59	유개고배2, 대부장경호2, 적연호1, 적연발1				6	"	
87	75호	옹관묘	76	24	25	파수부배1, 적연용2, 적연파수부배1				4	"	
88	76호	수혈식	366	70	100	고배1, 유개고배4, 단각고배1, 대부장경호2, 대부완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1, 철검1, 검형철기1		인골3	16	"	
89	77호	수혈식	374	85	120	고배1, 유개고배10, 뚜껍2, 단경호1, 장경호2, 대부장경호2, 대부호1, 연질호2, 적연호1	도자3, 철축2, 꺾쇠3, 검형철기1, 교구1, 성시구부속품4, 정1	이식2		35	"	
90	78호	수혈식	322	77	81	고배4, 유개고배4, 뚜껍4, 대부장경호1, 연질호2, 연질완1, 적연호2, 적연뚜껍2, 토기편일괄	도자1, 철부1	이식2		24	"	
91	79호	수혈식	335	90	84	유개고배5, 단경호1, 삼이부호1, 대부장경호5, 파수부호1, 연질유개고배1, 연질호2, 적연유개고배1	도자3, 꺾쇠1, 철검1, 철탁2, 검형철기1		방추차1 인골2	28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92	80호	수혈식	146	44	41	고배2, 유개단각고배2, 뚜껑4, 대부호1, 연질발1, 토기편일괄					10	삼국	
93	81호	수혈식	180	45	48	유개단각고배4, 대부장경호2, 적연발1		이식2, 청동관1			10	"	
94	82호	수혈식	392	84	74	고배4, 유개고배1, 뚜껑3, 대부장경호2, 적연발2, 토기편일괄	도자2, 철축3, 격쇠2	이식4	인골1		24	"	
95	82-1호	토기군	40	28	7	토기편			토구1		1	"	
96	83호	수혈식	105	30	53	대부장경호2, 적연발1					3	"	
97	84호	횡혈식	305	140	88	고배2, 유개단각고배4, 단각고배9, 뚜껑11, 단경호2, 완1, 영배2, 적연단각고배1, 적연고배3, 적연뚜껑5, 적연호1, 적연발4, 토기편일괄	도자3, 철축6, 철탁3, 유자이기1, 철물1, 철태편1				65	"	
98	85호	횡혈식	328	257	53	유개단각고배6, 단각고배8, 뚜껑9, 단경호1, 대부장경호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2, 철축3, 철검1, 철정1, 유자이기1	이식1			35	"	
99	86호	수혈식	150	35	26	적연호1, 유개적연호1, 유개적연발1, 토기편일괄					3	"	
100	87호	수혈식	236	50	49	유개고배4, 대부직구호1, 대부장경호5, 적연완1	도자1				12	"	
101	88호	횡구식	435	60	76	고배2, 유개고배1, 유개단각고배2, 단각고배3, 뚜껑2, 단경호2, 대부장경호4, 부가구연장경호1, 파수부옹1, 연질뚜껑1, 연질발1, 적연옹1, 적연완1, 토기편	도자2, 철검1, 유자이기2				31	"	
102	89호	수혈식	212	52	63	고배3, 유개고배2, 뚜껑2, 대부장경호2, 적연호1, 적연발1, 적연완1	도자1		방추차1		15	"	
103	90호	옹관묘	285	65	69	고배3, 단경호, 대부장경호3, 대부호3, 대부완2, 적연발1					14	"	
104	91호	횡혈식	465	132	24	고배7, 유개고배1, 단각유개고배1, 단각고배3, 뚜껑13, 연질고배2, 연질뚜껑1, 적연뚜껑4, 적연발2, 적연호1, 토기편	도자4, 격쇠7, 유자이기3, 철물1		이식2, 금동관1		44	"	
105	92호	수혈식	210	36	57	유개고배1, 고배1, 뚜껑1, 장경호1, 대부장경호2, 적연호1, 적연발1					8	"	
106	93호	수혈식	110	30	38	뚜껑1, 대부장경호1, 적연발1, 적연완1, 장동형토기1					5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07	94호	수혈식	110	30	38	뚜껑1,대부장경호1,적연발1,적연완1,장동형토기1				5	삼국	
108	95호	수혈식	430	65	67	고배10,유개고배1,뚜껑3,호8,대부장경호2,대부파수부호1,파수부호1,대부완10,적연호1,적연파수부완1	재갈1,철검1,철기2,이형철기1	이식2	방추차1	47	"	
109	96호	수혈식	190	53	29	단각고배6,뚜껑2,적연발1,토기편일괄				9	"	
110	97호	수혈식	387	78	96	고배10,유개고배4,단각유개고배1,단각고배1,뚜껑5,단경호4,대호1,대부장경호1,대부완1,연질유개고배3,연질고배1,연질호2,연질파수부호1,적연고배1,적연단경호1,적연광구소호1,적연파수부호1	도자5,철촉3,철탁3,유자이기1,재갈1,등자2,검형철기1	이식2	방추차1	60	"	
111	98호	수혈식	220	50	38	대부장경호2,토기편일괄				2	"	
112	99호	수혈식	315	60	114	고배9,유개고배1,뚜껑1,호4,대부장경호1,연질호1,연질파수부호2,적연발1	도자1,철촉1,철기1	이식2	동물뼈	25	"	
113	100호	수혈식	80	20	37	단경호1,적연발1	철촉1	이식1		4	"	
114	101호	수혈식	316	56	93	단각유개고배3,단경호1,부가구연장경호2,파수부호2,대부호1,적연발2	도자1	이식1		13	"	
115	102호	수혈식	224	48	71	유개고배4,단각고배3,단경호2,대부장경호2,부가구연장경호1,적연발1	도자1	이식1		15	"	
116	103호	횡구식	273	65	100	유개단각고배4,단각고배4,뚜껑3,대부완2,유개대부완2,연질호1,적연호3,적연발2,토기편	철촉4,철검1,철물1			27	"	
117	104호	횡혈식	300	140	87	유개단각고배4,단각고배4,호1,대부장경호2,대부호1,적연발1,적연유개합1,적연뚜껑1,적연파수부호1	도자2,철촉1	이식1	방추차1	21	"	
118	104-1호	토기군	74	60	9	단각고배2,뚜껑1,옹1,광구소호8,적연발2,적연광구소호3				17	"	
119	104-2호	토기군	110	65	30	호1,대부장경호2,연질완1,적연호1,적색연질완1				6	"	
120	104-3호	토기군	50	39	5	대호1,대부장경호1,부가구연장경호1,적연발1				3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21	105호	수혈식	115	24	29	단경호1,대부장경호1, 부가구연장경호1,적연발1		청동 이식1		5	삼국	
122	106호	수혈식	215	55	37	유개단각고배4, 대부장경호2	철축1,철탁2			9	"	
123	107호	수혈식	143	35	32	고배2,대부장경호4, 대부완1,소용1				8	"	
124	108호	수혈식	245	65	42	고배2,유개고배4,뚜껑3, 호3,대부호1,대부완2, 연질유개고배2	따버2			19	"	
125	109호	수혈식	233	60	30	호,적연발1				2	"	
126	110호	수혈식	153	43	42	고배1,토기편				1	"	
127	111호	수혈식	250	40	40	고배5,유개고배3,뚜껑1, 대부장경호6,평저과수 부호1,연질발1				17	"	
128	112호	수혈식	245	60	73	고배8,유개고배1,뚜껑2, 단경호1,대부장경호4, 과수부호1,적연호1,적연발1				19	"	
129	113호	수혈식	235	55	60	고배5,유개고배1,뚜껑2, 대부장경호4,적연과수부호1, 적연발1,토기편일괄				14	"	
130	114호	수혈식	250	50	68	고배4,단경호2,대부장경호5, 대부완2,적연호1, 적연과수부호1,적연발1	도자1		방추차1	18	"	
131	115호	수혈식	249	65	135	고배3,유개고배1,뚜껑2, 대부장경호2,적연뚜껑4, 적연호3,적연이부호1, 적연과수부호1,적연발1	철도1,철탁2			21	"	
132	116호	수혈식	275	60	58	고배4,유개고배8,대부장경 호2,대부완1,유개이부호1, 유개삼이부호1,과수부호1, 연질단경호1,연질호5, 적연개1,적연호1, 적연발1,토기편일괄				27	"	
133	117호	수혈식	200	42	60	유개단각고배4,단경호2, 부가구연장경호1,대부장 경호1,적연발1,토기편일괄				9	"	
134	118호	수혈식	190	55	53	광구호1,적연완1,적연발1, 병형토기1	도자1			5	"	
135	119호	수혈식	235	30	80	고배4,대부장경호4, 과수부배1,연질호				11	"	
136	120호	수혈식	145	50	74	고배4,뚜껑3,단경호1,유개 호2,대부완12,삼이부호3, 유개삼이부호2,연질호3, 적연뚜껑1,적연발1	검형철기1, 철령2, 철탁1			36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37	121호	수혈식	210	70	58	유개단각고배4, 부가구 연장경호2, 연질단경호1, 연질호1, 적연발1	도자1			10	삼국	
138	122호	횡혈식	410	240	54	고배5, 단각고배2, 유개고배3, 유개단각고배5, 뚜껑5, 대부 장경호3, 대부완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3, 철촉6, 철모1, 철탁3, 청동탁1, 살포1, 철물2	이식1, 수하 장식1		44	"	
139	122-1호	토기군	50	43	12	대용2				2	"	
140	123호	수혈식	300	40	52	고배1, 유개고배4, 뚜껑1, 대 부호1, 대부장경호1, 적연호1, 적연발1, 적연용2, 토기편일괄	도자1			13	"	
141	124호	수혈식	225	43	46	고배2, 유개고배1, 대부장경호2, 적연발1		이식2		8	"	
142	125호	수혈식	330	70	71	고배4, 유개고배1, 뚜껑2, 대호1, 대부장경호2, 적연개2, 적연발1, 토기편일괄				12	"	
143	126호	수혈식	265	30	46	고배1, 뚜껑4, 대부장경호6, 적연고배3, 적연호1, 적연과수부호1, 적연발1		꼭옥1 경식1		19	"	
144	127호	수혈식	125	27	31	뚜껑2, 대부직구호2, 완2, 적연광구소호1, 적연발1				8	"	
145	128호	수혈식	205	50	73	대부장경호2, 연질완1, 적연완2				5	"	
146	129호	수혈식	324	85	64	고배8, 유개고배3, 뚜껑1, 단경 호2, 대부장경호4, 연질단경호 1, 적연단경호1, 적연발1	도자1	이식1		23	"	
147	130호	수혈식	270	40	68	고배2, 유개고배2, 뚜껑1, 단경 호1, 대부장경호3, 대부완1, 유개대부완1, 연질단경호2				13	"	
148	131호	수혈식	300	80	46	고배4, 유개고배4, 뚜껑5, 단경호1, 대부장경호3, 호2 대부완1, 연질호1, 적연용1	도자1, 철물1	이식2		25	"	
149	132호	수혈식	195	55	34	고배1, 단경호1, 장경호1, 대부장경호1, 적연발1, 토기편일괄				5	"	
150	133호	수혈식	182	32	20	고배3, 대부장경호6, 토기편일괄				9	"	
151	134호	수혈식	337	64	66	고배7, 유개고배4, 장경호1, 대부장경호3, 호3, 연질호2, 연질발1, 토기편일괄	도자1, 겸형철기1	이식1		24	"	
152	135호	수혈식	287	62	28	고배2, 유개고배3, 뚜껑1, 단경호2, 장경호2, 대부장경호3, 적연호1	도자1, 철촉1, 철정1			17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53	136호	수혈식	265	60	45	고배7, 유개고배3, 뚜껑1, 호2, 대부장경호5, 연질단경호2, 연질파수부호1, 적연발3	철탁2			26	삼국	
154	137호	수혈식	290	55	74	고배6, 유개고배3, 뚜껑7, 단경호3, 대부장경호3, 대부호2, 파수부호1, 연질고배2, 연질호1, 적연뚜껑1, 적연파수부배1				30	"	
155	138호	수혈식	225	40	67	고배5, 뚜껑2, 대부장경호1, 파수부호1, 적연발3, 토기편일괄				12	"	
156	139호	수혈식	365	85	111	고배10, 뚜껑5, 단경호1, 대부장경호4, 대부직구호2, 대부완1, 대호1, 연질호1, 적연발1				24	"	
157	140호	수혈식	332	64	105	고배6, 유개고배3, 뚜껑2, 대부장경호3, 대부직구호1, 호1, 파수부호1, 파수이부호1, 완1, 연질호1, 연질파수부호1, 적연발1	유자이기1			25	"	
158	141호	수혈식	250	70	49	고배2, 유개고배2, 대부장경호4, 적연발1	도자1		토구1	11	"	
159	142호	수혈식	255	60	47	유개고배4, 대부장경호2, 완1, 연질발1, 연질완1, 연질호1, 연질단경호1, 적연파수부호1			방추차1, 인골	13	"	
160	143호	수혈식	235	45	54	고배3, 단경호1, 대부장경호1, 대부호1, 양이부호1, 연질대부완1, 적연발1	도자1			10	"	
161	144호	수혈식	150	40	50	고배2, 단경호1, 대부장경호1, 파수부완2, 적연발1				7	"	
162	145호	수혈식	225	42	62	고배1, 유개고배2, 단경호1, 대부장경호3, 대부완3, 적연파수부배1	유자이기2		방추차1	14	"	
163	146호	수혈식	215	50	57	고배2, 대부장경호6, 적연발1	도자1, 철촉1			11	"	
164	147호	수혈식	248	55	61	대부장경호2, 적연발1	도자1			4	"	
165	148호	수혈식	230	50	67	고배3, 대부장경호1, 적연호3, 적연발2, 토기편일괄	철촉1			10	"	
166	149호	수혈식	252	53	78	고배11, 뚜껑6, 장경호1, 대부장경호3, 대부완2, 연질호4, 적연파수부호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1, 철촉군1, 유자이기1			32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67	150호	수혈식	240	45	56	고배3, 유개고배3, 대부장경호3, 대부호1, 연질호1, 소형적연발1, 토기편일괄					12	삼국	
168	150-1호	토기군	275	100	17	고배14, 뚜껑10, 호1, 대부장경호1, 대부호2, 대부완1, 적연뚜껑1, 적연호1, 적연완1, 적연광구소호4, 발형기대편일괄, 기대편일괄, 토기편일괄	도자1		인골		37	"	
169	151호	수혈식	294	54	61	고배5, 유개고배3, 뚜껑5, 단경호1, 대부장경호4, 연질호1, 적연파수부호1, 적연발1					20	"	
170	152호	수혈식	240	45	32	고배1, 유개고배4, 대부장경호2, 적연파수부호1, 토기편일괄					8	"	
171	153호	수혈식	150	30	29	고배2, 장경호1, 대부장경호1, 적연발1, 토기편일괄					5	"	
172	154호	수혈식	360	75	98	고배11, 유개고배1, 뚜껑3, 호1, 대호1, 대부장경호6, 파수부호2, 대부완1, 연질호1, 적연발2	도자1, 철촉6, 격쇠1, 유자이기1, 철검1				39	"	
173	155호	수혈식	375	55	87	고배17, 유개고배1, 뚜껑6, 단경호3, 호2, 대부장경호4, 광구소호2, 연질호4, 적연호1, 적연파수부호2, 적연파수부발1, 적연소호1, 적연발1	재갈1, 등자1, 철기(성시구부속품)1, 철기1, 철촉군2, 도자편1	이식2			53	"	
174	156호	수혈식	100	28	32	고배2, 대부장경호3, 대부완1, 광구호1, 파수부배1					8	"	
175	157호	수혈식	130	30	73	고배2, 단경호1, 대부장경호3, 대부완1, 적연배1					8	"	
176	158호	수혈식	398	88	71	고배14, 유개고배2, 뚜껑2, 대부장경호6, 대부완1, 연질호6, 적연호1, 적연소호1, 토기편일괄	도자1, 철촉5, 철부1, 격쇠1, 유자이기1, 철검1, 등자2, 교구1, 재갈1	이식2			49	"	
177	159호	수혈식	85	36	30							"	
178	160호	수혈식	145	92	33	단경호1					1	"	
179	161호	수혈식	374	70	44	고배7, 뚜껑3, 호4, 장경호1, 대부장경호5, 대부직구호2, 연질개1, 연질호1, 토기편일괄	도자1, 격쇠3, 유자이기3, 교구1				32	"	
180	162호	수혈식	344	70	42	고배2, 유개고배3, 대부장경호2,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1, 철촉7, 유자이기1				17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81	163호	수혈식	285	70	37	고배5, 유개고배1, 뚜껑4, 대부호2, 연질호4, 연질발1, 토기편일괄	도자1, 유자이기1			21	삼국	
182	163-1호	토기군	85	50	5	뚜껑1, 토기편일괄				1	"	
183	164호	수혈식	160	40	58	고배1, 유개고배1, 뚜껑1, 호1, 대부장경호3, 대부완1, 연질호1, 연질뚜껑1				9	"	
184	165호	수혈식	227	55	13	고배1, 토기편일괄	도자1			2	"	
185	166호	수혈식	274	55	57	고배8, 뚜껑4, 대부장경호2, 호1, 대부완3, 광구호1, 시부1, 연질호1, 연질파수부호1, 적연파수부호1, 적연소용1				24	"	
186	167호	수혈식	107	32	43	대부장경호2				2	"	
187	168호	수혈식	265	60	39	유개고배4, 대부장경호3, 적연용1, 토기편일괄	도자1			9	"	
188	169호	수혈식	180	60	17	뚜껑1, 대부장경호2, 연질호1	철축4, 유자이기2, 철기1			11	"	
189	170호	수혈식	285	36	74	고배5, 유개고배1, 뚜껑1, 호1, 대부장경호1, 대부호1, 연질호3, 적연고배1, 적연호1, 토기편일괄				15	"	
190	171호	수혈식	240	86	23	고배4, 대부장경호2, 적연양이부호1, 토기편일괄			인골	7	"	
191	172호	수혈식	305	60	52	고배7, 유개고배1, 뚜껑2, 단경호2, 장경호1, 대부장경호5, 연질단경호2, 적연고배1, 적연완2, 적연단경호1, 적연발2	철축7, 철검1	이식1		36	"	
192	173호	수혈식	134	32	34	고배2, 장경호1, 대부장경호4, 적연발	도자1, 철축1			10	"	
193	174호	수혈식	120	22	27	고배1, 유개고배1, 대부장경호2, 적연완1, 적연발1				6	"	
194	175호	수혈식	382	85	82	고배10, 유개단각고배4, 호1, 단경호2, 장경호1, 부가구연장경호2, 적연발1, 토기편일괄	철축1, 철부1, 유자이기1, 채갈1, 교구1, 철기1		방추차1	29	"	
195	175-1호	옹관묘	75	22	16	적연용2				2	"	
196	176호	수혈식	392	94	122	고배8, 유개고배5, 호3, 대호1, 대부장경호5, 대부완3, 연질호2, 연질파수부호1, 적연호1, 적연파수부호1, 적연발1, 유개적연발2, 토기편일괄	철기1	이식2		38	"	
197	177호	수혈식	232	55	74	단각고배1, 유개단각고배3, 뚜껑1, 대부장경호6, 양이부호1, 적연파수부호2, 적연발1		태환이식2	방추차1, 치아	18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198	178호	수혈식	278	50	85	고배4, 뚜껑3, 대부호1, 대부장경호3, 부가구연장경호1, 연질호1, 적연발1	도자1	이식2		17	삼국	
199	179호	수혈식	245	50	68	유개고배4, 대부장경호5, 적연발1		이식2		12	"	
200	180호	수혈식	253	45	70	고배1, 유개고배3, 단경호2, 대부장경호2, 적연발3				11	"	
201	181호	횡혈식	210	132	33	단각고배4, 부가구연장경호2, 적연단경호1, 토기편일괄	도자1, 철축2, 꺾쇠1, 유자이기1			12	"	
202	182호	수혈식	68	25	47	적연소호1, 이행토기1				2	"	
203	183호	수혈식	152	44	26	단각고배2, 유개단각고배2, 단경호23, 대부장경호2, 대부호1, 적연발1	철검1			12	"	
204	184호	수혈식	204	32	75	고배4, 삼이부호1, 대부장경호4, 대부완1, 연질호1, 적연파수부호1, 적연발1	도자1, 철축1, 철검1	이식1	치아	17	"	
205	185호	수혈식	225	42	68	유개고배4, 대부장경호2, 완1, 적연시루1, 적연발1				9	"	
206	186호	수혈식	86	24	16	적연발1				1	"	
207	187호	수혈식	265	55	65	고배3, 대부장경호2, 대부호1, 적연고배1, 적연호1, 적연발2, 토기편일괄	철축1		방추차1	12	"	
208	188호	수혈식	195	45	47	대부장경호1, 대부완2, 연질단경호1	이식2			6	"	
209	189호	수혈식	275	51	71	고배4, 유개고배1, 뚜껑1, 대부장경호5, 연질고배1, 적연호1, 적연파수부호1, 적연발1	도자1, 철축2, 철검1	이식2		21	"	
210	190호	수혈식	195	40	45	단각고배2, 단경호2, 대부장경호1, 부가구연장경호1, 대부호2, 적연호1, 적연파수부호1	철축1			10	"	
211	옹관1호	옹관묘	64	29	13	연질옹2				2	"	
212	옹관2호	옹관묘	61	35	24	연질옹1, 연질파수부용1, 파수부배1				3	"	
213	191호	옹관묘	75	27	13	병1, 적연옹2				3	"	
214	192호	횡혈식	215	20	21	고배5, 뚜껑4, 연질호3, 토기편일괄	도자1, 철축1			14	"	
215	193호	횡구식	200	95	37	단각고배5, 유개단각고배3, 단경호1, 연질단각고배1, 연질호1, 연질소호1, 토기편일괄				12	"	
216	193-1호	제사유구	25	25	18	연질호1				1	"	

연 번	유구 번호	구조	규격(cm)			출 토 유 물					시대	비 고
			장축	단축	깊이	토 기	철 기	장신구	기타	계		
217	194호	수혈식	97	27	36	단각고배1,대부장경호2, 대부완2,적연발1, 적연옹1,토기편일괄				7	삼국	
218	195호	수혈식	235	60	89	고배6,대부장경호4,부 가구연장경호2,연질호2				14	"	
219	196호	수혈식	270	55	77	고배4,호1,단경호2,대부장 경호2,대부호2,적연옹3	철기1, 이형철기1			16	"	
220	197호	횡혈식	307	46	70	고배5,뚜경4,단경호1, 대부장경호4,시루1,병형 토기1,대부완1,연질호2	도자2, 철탁3, 이형철판2			26	"	
221	198호	수혈식	112	27	36	유개고배1,뚜경1, 대부장경호2,연질호15				석구1 6	"	
222	198-1호	옹관묘	83	27	17	기대2,적연옹1, 적연시루1,토기편일괄				4	"	
223	199호	수혈식	270	50	22	고배3,유개고배1, 뚜경2,대부장경호2, 연질호1,연질파수부호1				10	"	
224	200호	수혈식	240	50	82	유개고배4,양이부호1, 대부장경호5,파수부배1				11	"	
225	201호	수혈식	270	76	36	유개단각고배4,뚜경1, 호1,대부장경호2, 부가구연장경호1,연질옹1	도자1			11	"	
226	202호	횡혈식	215	126	55	유개단각고배4,병1,연질 호1,적연옹1,토기편일괄			갈돌1	8	"	
227	203호	수혈식	158	32	28	단경호1,적연호1				2	"	
228	204호	수혈식	210	62	35	단각고배1,토기편일괄				1	"	
229	205호	석개 목관묘	185	80	21		도자1			1	"	
230	206호	수혈식	246	40	40	고배1,유개단각고배2, 뚜경1,단경호1,대부호1, 적연발1,토기편일괄	철촉1			8	"	
231	207호	수혈식	190	55	31	유개단각고배3,뚜경1,단경 호1,대부장경호1,부가구연 장경호1,연질단각고배1, 적연발1			방추차1	10	"	
232	208호	수혈식	244	200	45	단각고배8,유개단각고배1, 뚜경5,단경호1,대부호1, 부가구연장경호1,광구소호1, 적연발5,적연옹1,적연광구 소호1,토기편일괄	도자2, 철촉3, 철물1		방추차1	32	"	
233	208-1호	횡혈식	80	26	27	파수부배1,적연고배1, 적연발1				3	"	
234	208-2호	옹관묘	77	29	18	대부완1,적연옹2				3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235	208-3호	옹관묘	77	27	20	광구호1,적연옹3, 적연소용2,토기편일괄				6	삼국	
236	209호	수혈식	174	48	65	유개고배4,대부장경호6	도자1,철축2			13	"	
237	210호	수혈식	100	30	40	뚜껑1,대부장경호1, 부가구연장경호1,완1, 적연완1,적연발1	도자1			7	"	
238	211호	수혈식	218	60	83	고배1,단각고배5,대부장경호 2,대부직구호1,부가구연장 경호1,적연단경호1,적연발2	유자이기1		방추차1	15	"	
239	212호	횡혈식	366	82	83	고배4,뚜껑2,호3,단경호1, 대호1,대부장경호2,대부완4, 소형대부완8,연질고배5,연질 유개고배1,연질호1,적연호2, 적연발1,적연옹1	도자3, 철축3, 재갈1			43	"	
240	212-1호	수혈식	150	35	14	뚜껑1,토기편일괄				1	"	
241	213호	횡구식	315	55	118	단각고배2,유개단각고배1, 뚜껑3,대부장경호2,부가구 단연장경호1,대부완1,적연고 배1,적연유개고배3,적연뚜 껑1,적연이부호2,적연발1	철부1			19	"	
242	214호	수혈식	224	44	51	토기편일괄					"	
243	214-1호	수혈식	82	30	38	유개단각고배1,단경 호1,적연소용1,적연광 구소호1,적연대부완1				5	"	
244	215호	횡혈식	220	235	51	고배1,단각고배2,뚜껑3, 단경호2,대부장경호1,단 경병1,적연발1,토기편일괄,	도자3,철점1 철탁1, 유자이기1			18	"	
245	216호	수혈식	105	42	21	대부호2,적연파수부배1				3	"	
246	217호	수혈식	243	60	34	단각고배4,대부장경호1, 부가구연장경호3,적연발1	도자1			10	"	
247	218호	수혈식	334	65	56	고배2,유개고배1,뚜껑3, 단경호2,호1,대부호1,대부 장경호3,부가구연장경호1, 연질파수부호1,적연대부호1, 적연완4,적연발2				22	"	
248	219호	수혈식	110	30	37	부가구연장경호1, 연질옹2,토기편일괄		이식2		5	"	
249	220호	수혈식	290	70	54	유개단각고배4,단경호1, 대부장경호3,연질호3, 적연이부호1,적연발1	도자1			14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250	221호	수혈식	335	60	74	고배1, 유개단각고배4, 단경호1, 대부장경호4, 적연고배2, 적연유개고배2, 적연뚜껑1, 적연유개호1, 적연단경호1, 적연발1, 적연삼이부호2	철촉4, 유자이기1				26	삼국	
251	222호	수혈식	185	64	57	고배4, 호1, 대부장경호2, 연질호1, 적연호1, 적연유개호1, 적연유개이부호1, 적연발1					13	"	
252	223호	수혈식	140	32	30	대부장경호1, 부가구연장경호1, 적연발1					3	"	
253	224호	횡구식	315	88	73	고배2, 유개고배1, 뚜껑1, 단경호1, 대부장경호1, 대부완1, 광구호1, 연질단경호1, 연질호1, 적연고배2, 적연뚜껑1, 적연호1, 적연발3	철촉1	이식2			18	"	
254	225호	횡혈식	150	210	65	대부장경호3, 부가구연장경호2, 양이부호1, 적연고배2, 적연뚜껑1, 적연이부호3, 적연완1, 적연발2, 토기편일괄	도자1	이식1			17	"	
255	226호	수혈식	252	65	39	단각고배1, 유개단각고배3, 뚜껑2, 단경호2		이식1			9	"	
256	226-1호	제사유구	32	25	3	적연옹1					1	"	
257	227호	횡구식	250	92	48	대부장경호2, 부가구연장경호1, 적연완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1	이식1			7	"	
258	227-1호	제사유구	23	20	10	부가구연장경호1					1	"	
259	228호	석개목관묘	245	75	63	대부장경호1, 유개적연배1, 적연발1, 적연옹1					4	"	
260	228-1호	제사유구	27	18	7							"	
261	229호	수혈식	115	17	34	대부장경호2, 적연완2, 적연발1, 적연옹1	도자1				7	"	
262	229-1호	제사유구	56	40	7							"	
263	230호	수혈식	220	56	46	고배1, 유개고배4, 대부장경호5, 양이부호1, 적연발1, 토기편일괄	도자1				13	"	
264	231호	석개목관묘	220	80	41	대부장경호1					1	"	

연번	유구번호	구조	규격(cm)			출토유물					시대	비고
			장축	단축	깊이	토기	철기	장신구	기타	계		
265	232호	수혈식	168	46	36	유개단각고배2,적연 파수부호1,적연발1				4	삼국	
266	233호	횡구식	311	54	68	고배10,유개고배1,뚜껑2, 단경호1,대호1,대부장경호7, 연질호1,적연뚜껑1,적연발1	철탁2			27	"	
267	234호	수혈식	125	83	64	고배2,단각고배1, 뚜껑4	도자2, 유자이기1			10	"	
268	235	수혈식	95	55	43	단각고배3,유개단각 고배2,뚜껑3,적연파수 부호1,토기편일괄				9	"	
269	236	수혈식	80	26	55	대부장경호2,파수부배1				3	"	
270	237	수혈식	205	48	73	고배3,뚜껑3,단경호1 대부호1, 대부장경호2, 부가구연장경호1,적연완1 적연발3,토기편일괄	이식2			17	"	
271	238	수혈식	145	40	65	뚜껑1		청옥3		4	"	
272	옹관3호	옹관묘	58	22	24	적연옹2,대부완1				3	"	
273	옹관4호	옹관묘	60	25	24	평구소호1,적연소호1 적연파수부호1,적연옹1				4	"	
274	옹관5호	옹관묘	58	25	19	적연옹2				2	"	
275	시루1	토기군	34	29	14	시루1,단각고배1 뚜껑2,대부완1				5	"	
276	주거지 1호		540	240 (잔)	10	적색연질발1,토기편일괄				1	"	
277	주거지 2호		550	500	20	평저호1,연질옹1 연질호1,연질발1				4	"	
278	주거지 3호		500	450	23	소호1,토기편일괄				1	"	
279	제사유구 1호		350	180	15	단각고배3,부가구연장경호1 대부완1,고배배신부, 대각부등 토기편일괄				5	"	
280	제사유구 2호		225	100	3	대부완1,토기편일괄				1	"	
281	제사유구 3호		480	130	15	고배1,단각고배1, 대부호대각부,기대편, 적연뚜껑1,연질호1, 연질파수부호1,토기편일괄				5	"	
합계						3,359	520	93	70	4,042		

Ⅳ. 맺음말

時至地區 古墳群의 정확한 年代 및 性格에 대해서는 遺構유물에 대한 綜合的인 檢討가 이루어져야만 확실하게 밝혀지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동안 조사하면서 파악된 몇가지의 特徵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調査된 石槨墓는 총 197기이며, 이중 장축의 길이가 3m이상인 유구는 33기, 2.5m이상인 유구는 32기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형급의 석곽묘들은 장축의 길이가 대부분 남북방향을 하고 있으며, 동서로 길게 열을 이루면서 축조되어 있다. 이러한 수혈식 석곽묘 중에서 두 유구가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는 유구(27·28호, 56·57호, 139·140호 등)가 상당수 확인되고, 2~4기의 유구가 서로 밀집된 상태로 축조된 것도 있으며 또한 두 유구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유구도 있다. 이러한 遺構들은 夫婦나 親族關係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遺物의 副葬樣相에 있어서 석곽의 길이가 2.5m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양단벽쪽에 치우쳐서 출토되고 있고, 부장유물의 양적인 면에서도 다른 유구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다.

또한 일부 유구에서는 근접한 거리에 부정형 또는 원형의 수혈을 파고 유물을 매납한 현상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유구의 築造過程이나 築造後에 어떤 儀禮的인 行爲에 의한 結果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로는 수혈식석곽(48·64·82·150·226·229호)에서는 양단벽중 어느 한단벽에 접해서 매납되어 있고, 횡구식석실인 227호의 경우는 횡구부쪽에서 50cm 떨어진 지점에 원형의 토광을 파고 부가구연장경호 1점을 매납하고 있다. 횡혈식석실(13·17·60·104호)에서는 석실의 연도부나 장벽에 접해서 그리고 구의 중앙부에서 적색연질호나 단각고배 등이 출토되는 것이 있다.

3. 古墳의 立地는 '94년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옥수동고분군이 능선의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번에 조사한 고분군은 능선의 말단부와 취락지와 접하는 평지상에 분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된 유구들은 대부분이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 횡혈식석실, 옹관묘 등이며, 유물은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부가구연장경호, 단각고배, 적색연질발 등이 출토되고 있다.

수혈식석곽은 산사면이나 평지 등 어느곳에서나 분포하고, 횡구식·횡혈식석실의 경우는 산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평지상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고분의 축조는 능선정상부쪽과 사면에 다소 이른 시기의 유구들이 축조되고, 평지로 내려오면서 늦은 시기의 유구들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遺構의 相對的인 築造順序는 수혈식석곽에서 횡구식·횡혈식석실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선 시기에 해당하는 일부의 석곽묘를 제외한다면 거의 동시기에 서로 다른 묘제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古墳의 築造年代는 時至洞 聚落址¹⁾와 연관지어 보고, 영남지역과 대구지역의 土器編年으로 볼 때 그 중심연대는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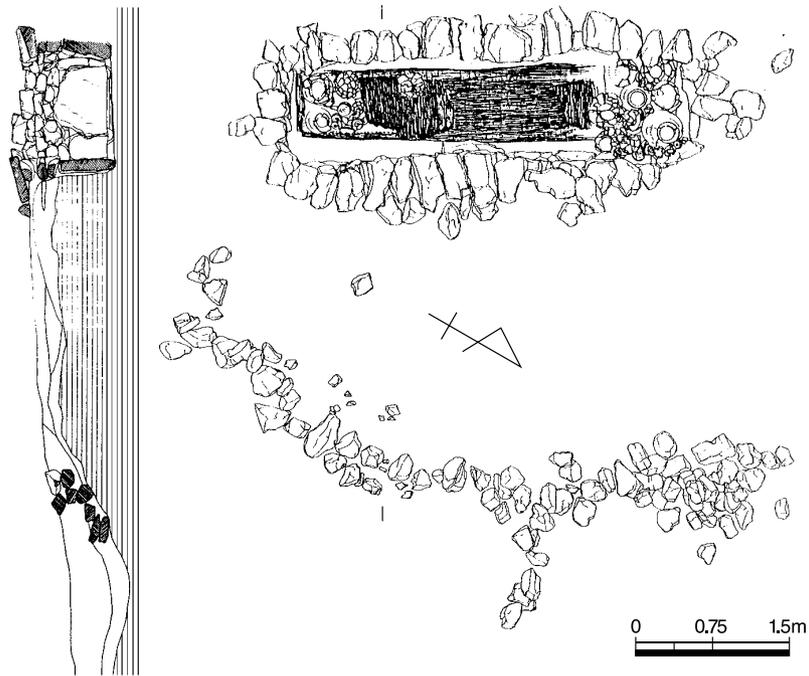
이상에서 시지동고분군에의 입지와 각 유구별 특징 그리고 축조연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러한 古墳資料와 既發表된 자료²⁾, 그리고 주변의 聚落址와 土器窯址, 山城 등과 같은 同時期의 遺蹟들을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研究한다면 이 지역의 古代史 연구뿐만아니라 당시의 社會生活相을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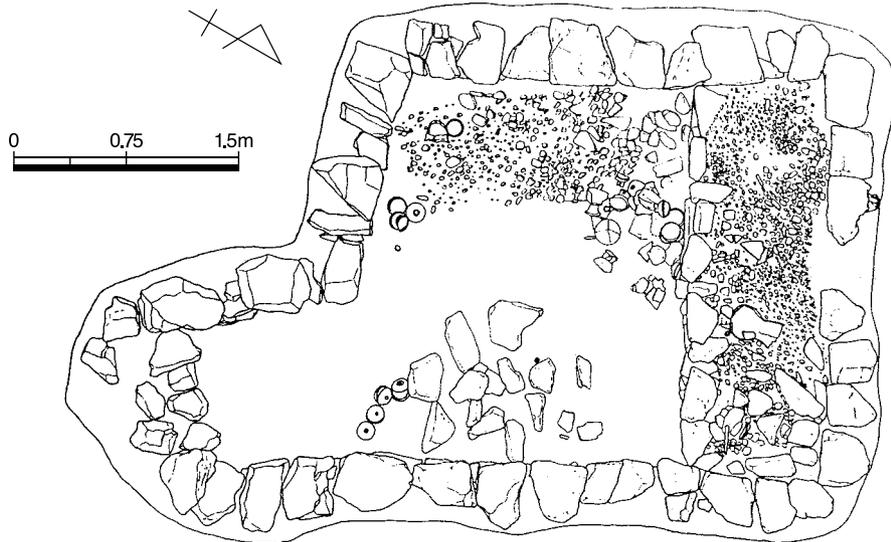
1) 國立文化財研究所, 1996, 「大邱時至洞 I」에서는 시지동 취락지의 중심연대를 6세기에서 7세기경으로 편년하고 있다.

영남대학교박물관, 1994, 「대구 시지택지개발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중간결과보고서3」에서는 5~7세기경으로 편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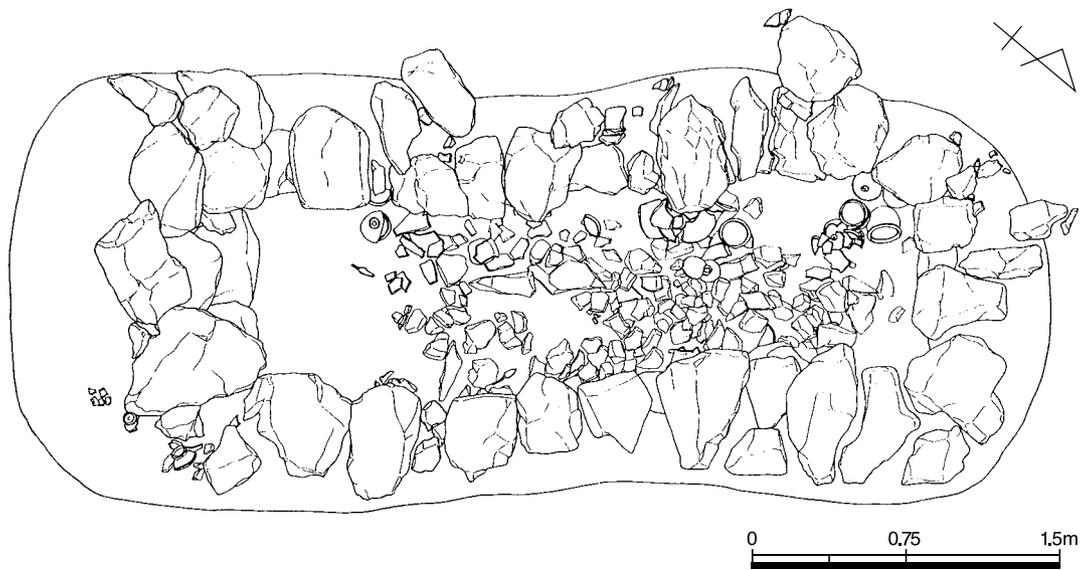
2) 김창익, 1995, 「대구 시지동유적 발굴조사 개보」 『제2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김창익 외, 1996, 「대구 시지동유적 발굴조사 개보」 『제4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발표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대구 시지동유적 I』;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대구 시지동유적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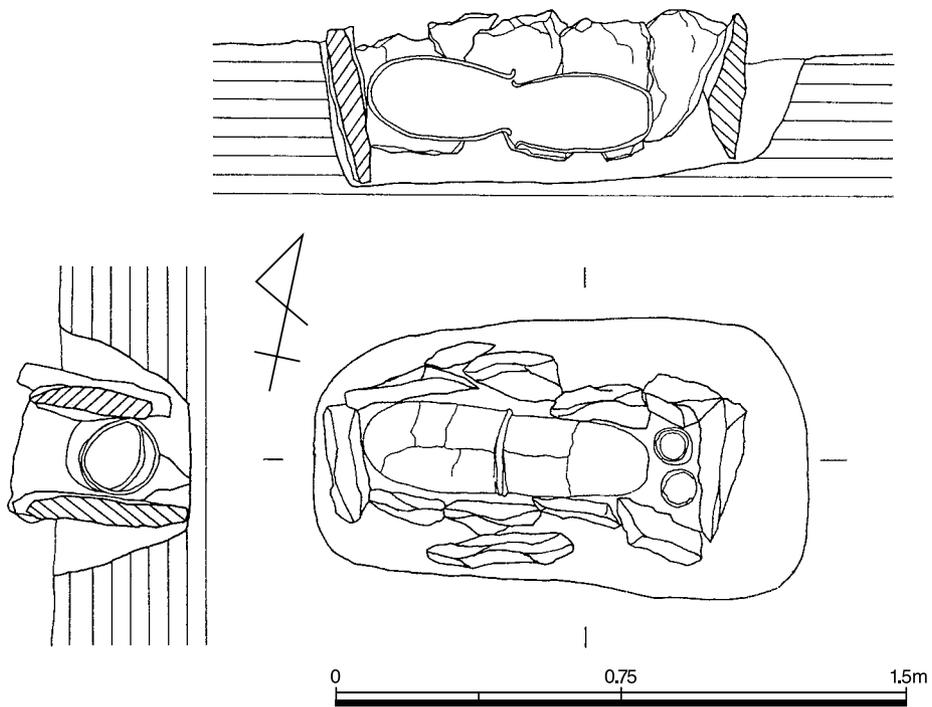
〈도 3〉 176호 평면도



〈도 4〉 122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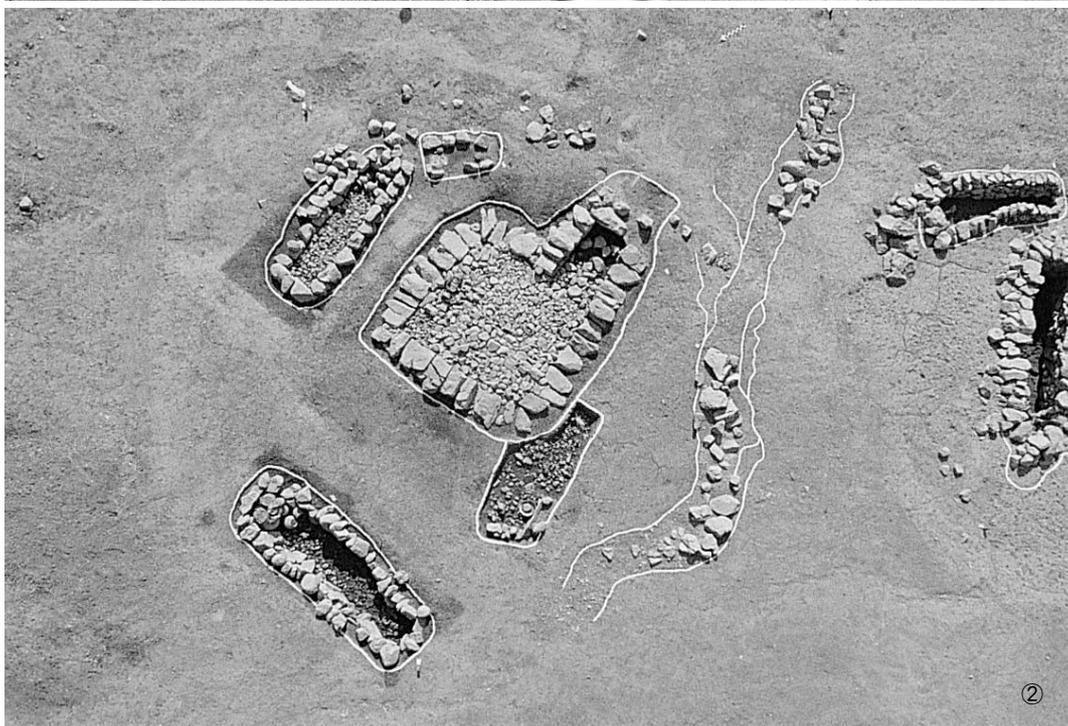
〈도 5〉 103호 평면도



〈도 6〉 75호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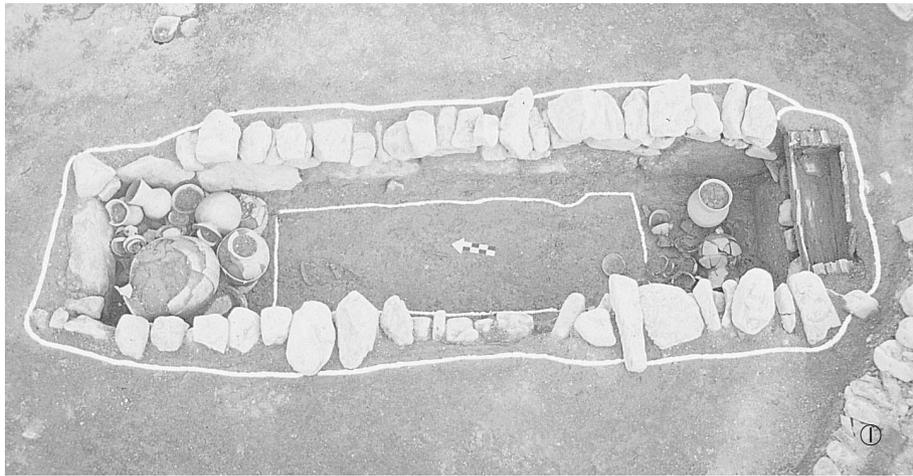
〈사진 1〉 ① 유적전경, ② 고분군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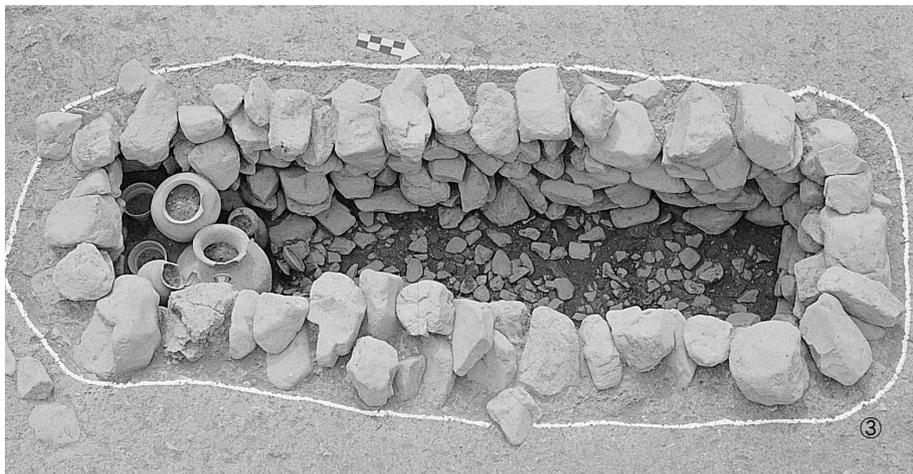
〈사진 2〉 ① 25G 동편전경, ② 215호 석실주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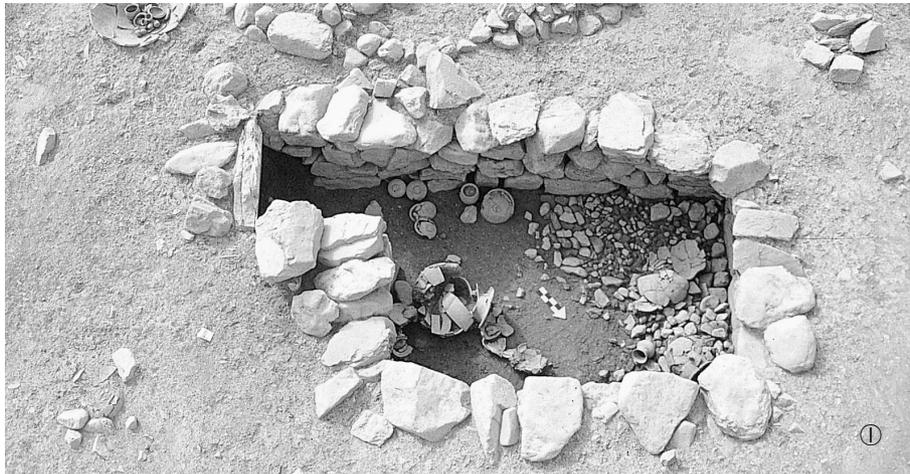
〈사진 3〉 ① 16호 전경, ②·③ 155호 전경 및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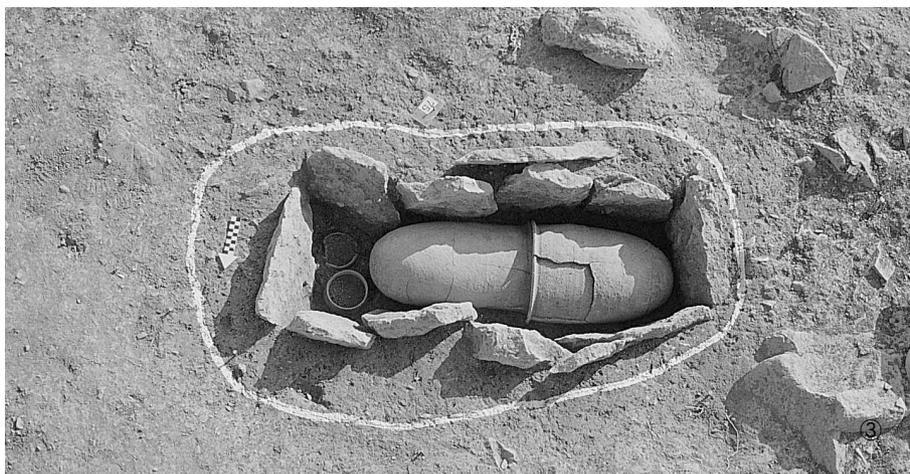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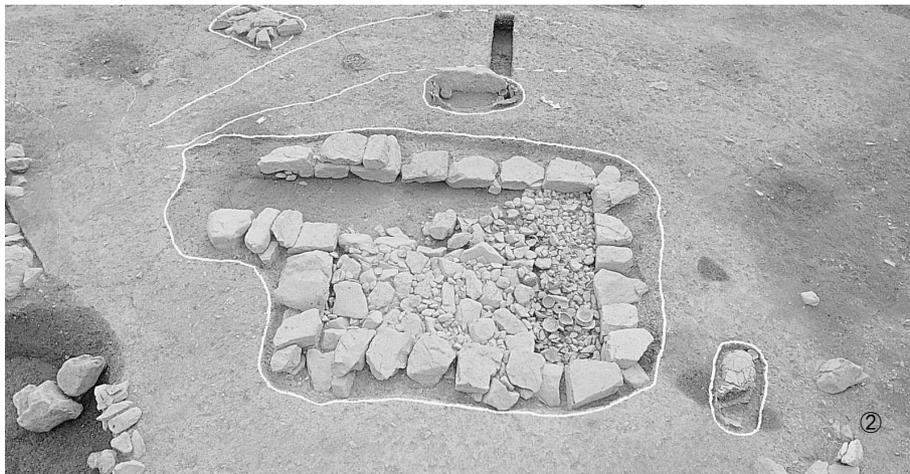
〈사진 4〉 ① 158호 전경, ② 남단벽유물세부, ③ 등자출토상태



〈사진 5〉 ① · ② 176호 전경 및 세부, ③ 196호 전경



〈사진 6〉 ① 104호 전경, ②·③ 104호 제사유구 전경



〈사진 7〉 ① 103호 전경, ② 208호 전경, ③ 75호 전경



〈사진 8〉 ① 대부장경호 각종, ② 고배 각종, ③ 장신구 및 철기

慶山 林堂 F-Ⅱ 地區 周溝附建物址

권태웅*

〈 목 차 〉

I. 머리말	3) 10호
II. 조사경과	4) 15호
III. 조사내용	5) 48호
1. 週溝附建物址의 概觀	6) 56호
2. 유구조사내용	7) 수습유물
1) 6호	IV. 맺음말
2) 9호	

I. 머리말

慶山 林堂洞 遺蹟은 慶山市 林堂洞, 造永洞, 夫迪洞의 3개동에 걸쳐서 분포하며, 유적의 동쪽에서 북쪽으로 琴湖江에 합류하는 烏鷺川이, 서쪽에는 南川이 흐르며 주변으로 넓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양하천과 금호강 사이에는 남쪽의 산지에서 흘러내린 얇은 구릉이 길게 뻗어 있다. 押梁丘陵이라 불리는 이 구릉에는 곳곳에 많은 고대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林堂유적이 그 가운데 하나로 압량구릉의 북측말단부에 위치한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 의하면 이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분묘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주거지군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유적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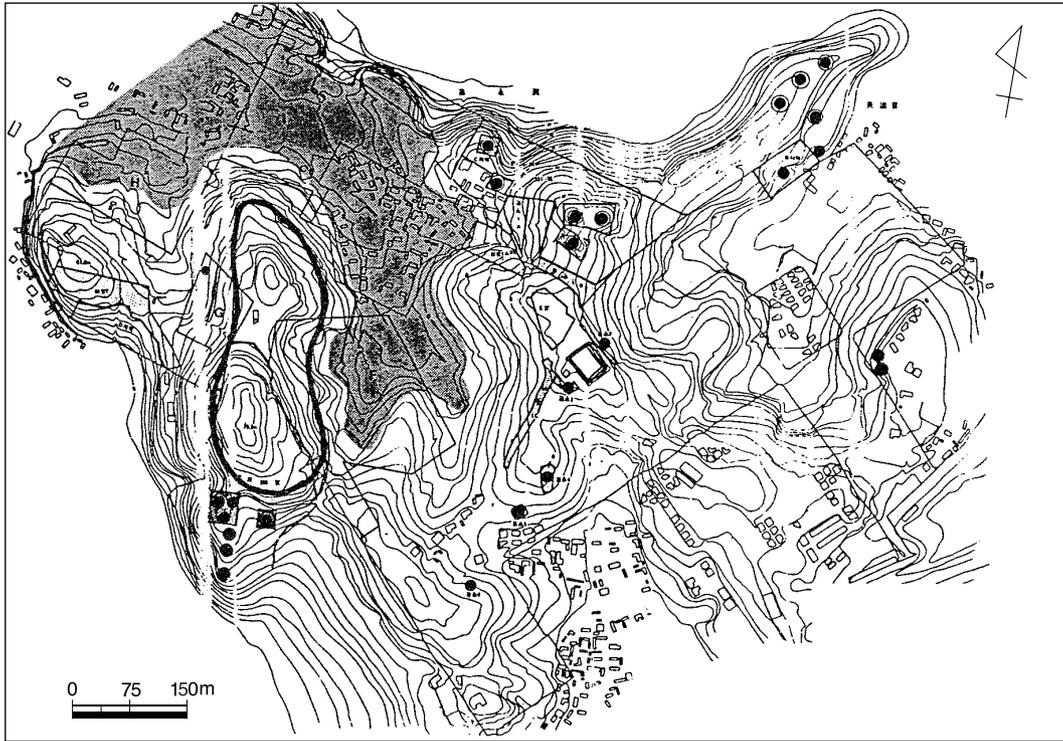
이번의 발굴조사는 이지역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 여부를 두고서 1993년 임당유적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시굴조사¹⁾가 실시되었으며, 시굴조사 결과 일부지역을 보존지구로, 그 외의 지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역에 대해서는 발굴조사²⁾ 후 개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에서는 임당유적의 서쪽부분인 F, G, H, I지역의 약 28,500평에 대한 발굴조사를 3차에 걸쳐서 실시하였다(도 1).

Ⅱ. 조사경과

F-II 지구는 임당유적의 서편 중앙에 위치하며 임당동고분군(사적 300호)의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곳의 지형적 위치는 임당동 고분군에서 서북으로 뻗어있는 서쪽 주능선의 동사면과 중앙의 동서 주능선의 북사면에 해당되며 시굴조사시 분묘유구 및 주거지와 관련된 수혈 및 주혈이 상당히 높은 밀도로 전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쪽 주능선의



〈도 1〉 임당지역 지형 및 지구별 위치도

- 1) 영남대학교박물관, 1993, 「林堂遺蹟試掘調査報告書」.
- 2) 영남대학교박물관, 1991, 「慶山林堂地域古墳群Ⅰ」.
영남대학교박물관, 1994, 「慶山林堂地域古墳群Ⅱ」.



〈도 2〉 임당F-II 지구 유구배치도

서사면은 G지구로서 삼국시대 분묘군이 위치하고 있다.

조사전 상태는 포도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는데 사면 위쪽인 서쪽과 사면 아래쪽의 완만한 경사면은 청석암반면까지 과수구덩이와 각종 시설들로 교란되어 있었다. 대체적으로 사면 아래쪽에 퇴적이 많이 이루어져 주구건물지가 확인되는 면까지 약 1.5m가량 제토해야 했다.

F-Ⅱ 지구의 전체적인 토층양상은 암갈색부식토층(표토층)-암갈색사질점토층 - 황갈색사질점토층 - 황갈색청석풍화층 - 황갈색점토층/석비레층/청석암반층(생토층)으로 퇴적되었다.

유구는 30~100cm정도의 퇴적토를 제거하자 황갈색사질점토층에서부터 삼국시대의 유구 등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도 2).

Ⅲ. 조사내용

F-Ⅱ 지구에서는 조사결과 대체로 3개 층에서 유구가 조사되었다. 1층은 암갈색부식토,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근대~조선시대 분묘 29기가 조사되었다. 2층은 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목책과 목책 상층을 포함하며, 조사된 유구는 토광유구, 건물지, 우물, 구I호 등이다. 3층은 목책하층에서 청석암반층까지로서 소토유구, 주구부건물지, 토기유구(토기혈), 폐기장, 원삼국시대 목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이 글에서는 F-Ⅱ 지구에서 확인된 160여기의 유구 및 시설 중에서 58기의 주구부건물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週溝附建物址의 概觀

주구부 건물지란 임당 F-Ⅱ 지구에서 확인된 건물지로서, 일반적으로 주구가 있고 주구와 관련이 있는 일련의 주혈군을 포함하는 高床式의 遺構를 말하는데 일부 地床式과 竪穴式의 遺構가 있다. 대체로 3C말~4C대의 유구로 판단되며 주구의 평면 형태와 주혈의 평면 배치상태에는 규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유구의 床面이 구지표에서 들려있는 高床式의 구조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고 구지표를 약간 다듬어 상면으로 사용한 地床式과 구지표를 깊게 파고 상면으로 사용한 竪穴式이 있다. 대체로 기반암인 청석암반면과 그 위의 황갈색 청석풍화층과 황갈색 사질점토층, 황갈색 점토층 등에서 유구가 확인되며 주변의 교란된 토기편 등 외에 확실한 공반유물이 없다. 유구 주변에서 수습된 토기편중 약 30%정도는 옹류인데 원저의 장동형의 옹류이며 당시에 양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토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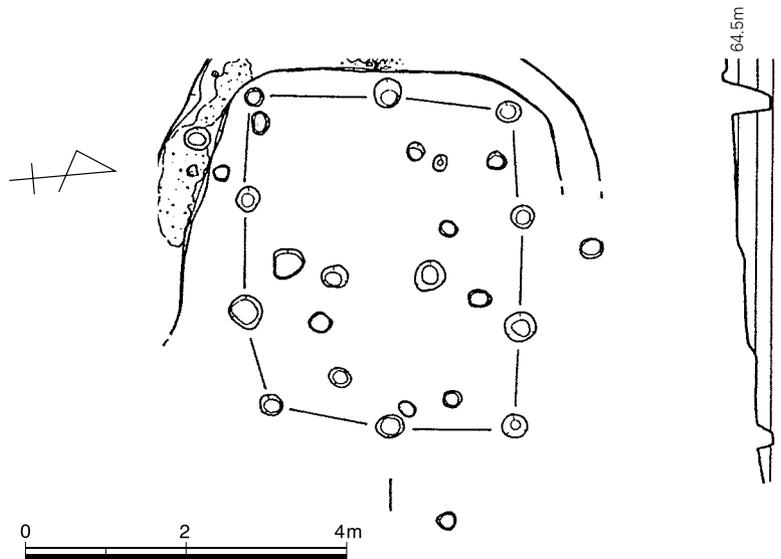
주구의 평면형태와 주혈의 평면배치형태에는 각기 분류할 수 있는 규칙성이 있는데 유구설명문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 보았다. 주구의 경우, 둥근 호상의 평면형태(A형), 이중의 주구 평면형태(B형), 북쪽에 편재된 ㄱ자형의 평면형태(C형), ㄷ자형의 평면형태(D형)가 있고, 주혈의 경우, 둥근 호상의 주혈열(I형), 주혈열 양단에 큰주혈이 있고 그 사이에 일직선 또

는 호상의 주혈열이 있는 형태(Ⅱ형), (장)방형의 규칙적인 주혈배치(Ⅲ형)가 있다. 그러나 주혈배치의 경우 상호복합적인 형태도 있다.

2. 유구조사내용

1) 6호(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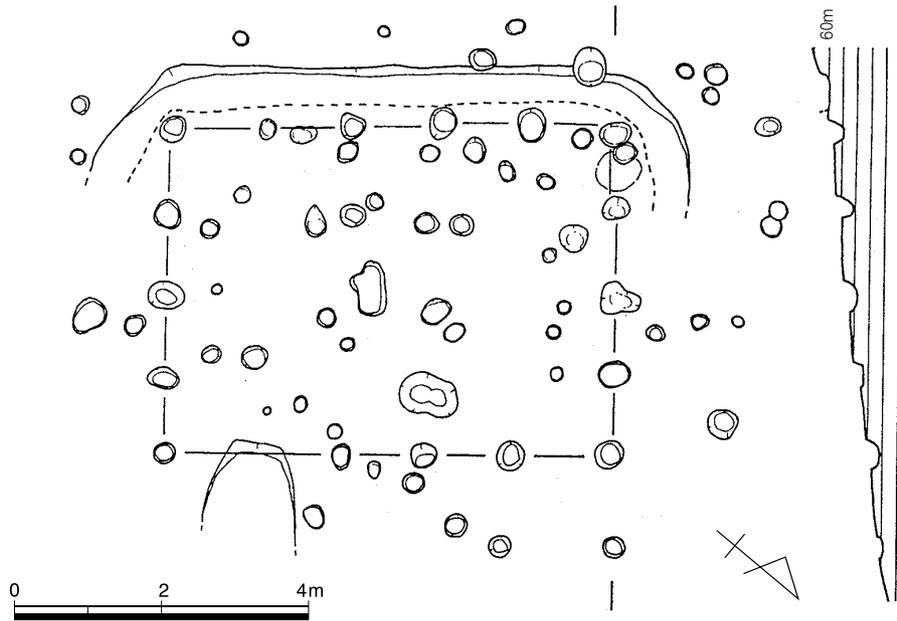
F-II 지구 서단 중앙부에 있으며 동쪽에 4호, 7호 서쪽에 17호, 18호 남쪽에 3호가 있다. 황갈색 청석풍화층에서 노출된 유구는 고상식이며, 주구가 D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길이 550cm, 폭 30~65cm, 깊이 10~15cm정도이다. 특히 주구내부에 소토와 목탄, 토기편이 섞여 노출되었는데 상부구조물과 관련된 흔적으로 판단된다. 주혈의 배치 형태는 비교적 정형성이 뚜렷한 2×3간의 건물 형태이고 주혈의 대체적인 크기는 직경 20~45cm, 깊이 20~55cm 정도로 다른유구에 비해 비교적 깊은 편이다.



〈도 3〉 주구부건물지 6호

2) 9호(도 4)

F-II 지구 중앙북쪽에 있으며 남쪽에 8호, 북쪽에 31호가 있다. 청석암반 및 황갈색 청석풍화층에서 노출된 유구는 고상식이고 주구의 동쪽변이 유실되어 거의 흔적만 남아있다. 주구는 D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길이 800cm, 폭 50cm, 깊이 12cm정도이다. 주혈의 배치는 정면 5간, 측면 4간이며 전체 규모는 640×530cm이다. 유구 주변에서 상당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었



〈도 4〉 주구부건물지 9호

으며 암반면 일부에 불맞은 흔적이 소토, 목탄과 함께 관찰되는데 상부구조의 폐기와 관련이 있는 흔적으로 추측된다. 주혈의 크기는 대체로 직경 20~50cm, 깊이 20~40cm정도이다.

3) 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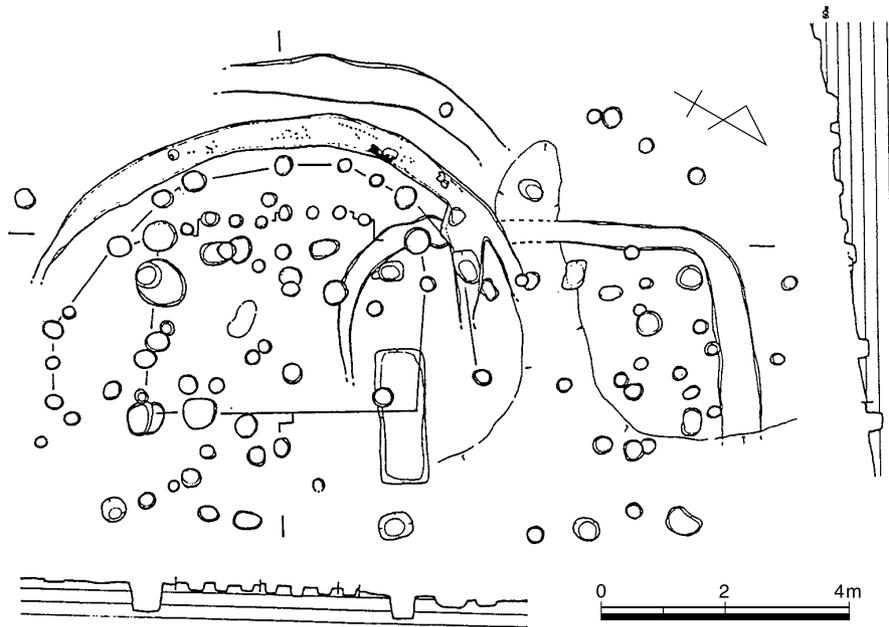
(1) 유구(도 5)

F-II 지구 북서쪽에 있으며 11호와 중복되어 있다. 청석암반 및 황갈색 청석풍화층에서 노출된 유구로 고상식으로 판단된다. 주구의 형태는 B형이며 외주는 ㄱ자형의 편재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내주는 C자형으로 확인되었다. 외주는 길이 500cm, 폭 60cm, 깊이 10cm, 내주는 길이 750cm, 폭 46cm, 깊이 20cm정도이다. 내·외주안에는 소토와 목탄이 일부 관찰되며 특히 내주안에서는 와질단경호 1점, 용 1점의 토기편과 다량의 소토, 목탄이 노출되었다. 주혈의 배치는 다른 유구들에 의해 특히 조밀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일부 다른 유구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주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혈의 배치는 내주 안쪽에 붙어 호상의 주혈열과 그 안쪽에 방향의 주혈군이 확인된다. 유구중앙부에 불맞은 흔적이 관찰된다.

(2) 유물

①와질단경호(도 10-1)

회청색 와질의 단경호로 소성이 거의 도질화된 단계이다. 태토는 사립을 함유한 고운점토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경부는 C자상으로 외반하고 종방향의 마연에 의한 암문효과를 내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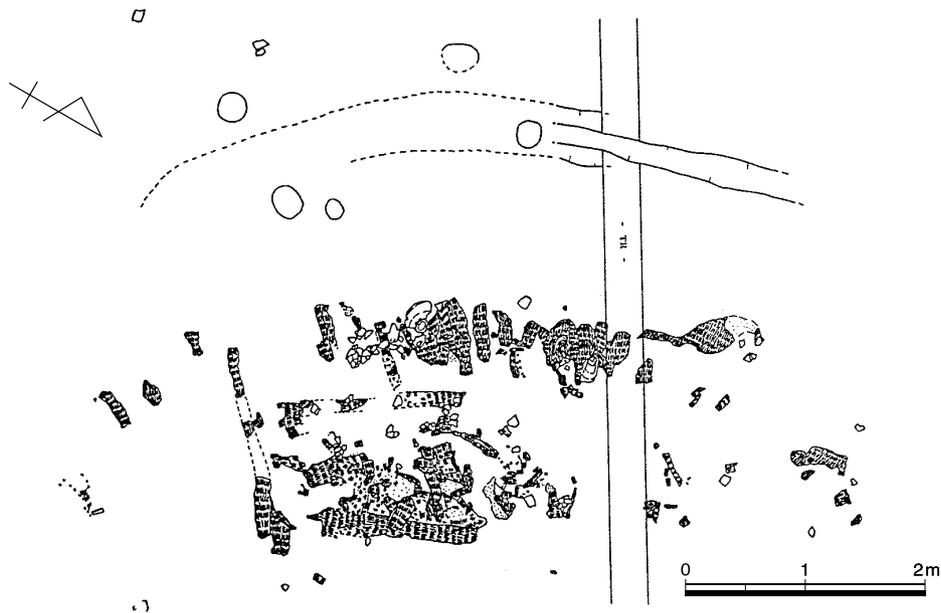
〈도 5〉 주구부건물지 10호

다. 암문은 경부 전체의 1/2에 폭 4cm 정도의 암문군이 3개 관찰되고 나머지 1/2에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관찰된다. 동 최대경은 동체 중위에 있으며, 저부는 원저이다. 甕전면은 회전물순질 정면되어 있으며 기내면 바닥에 손누름흔이 관찰된다. 기고 18cm, 구경 11.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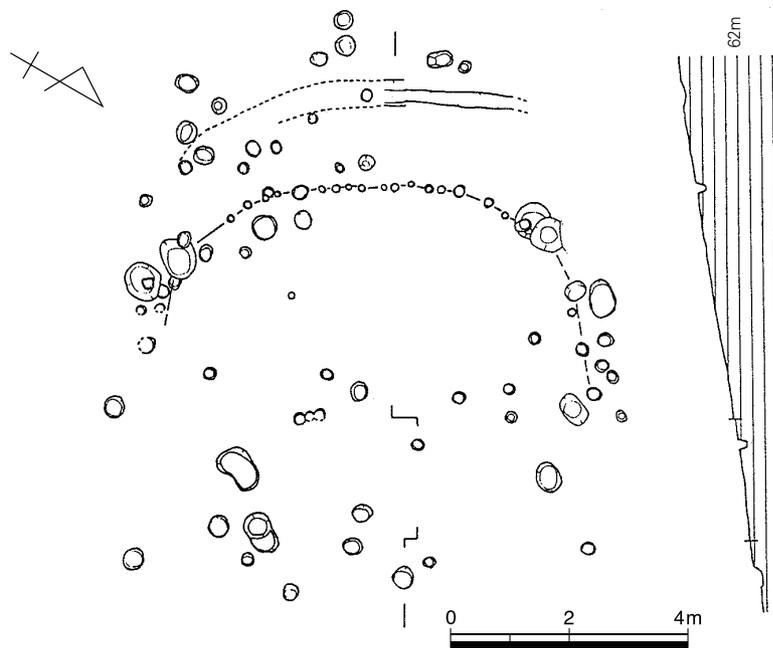
4) 15호

(1) 유구(도 6·7)

F-II 지구 북서쪽에 있으며 남쪽에 11호, 30호 등이 있고 토광 13호, 14호, 15호 등에 중북·파괴되었지만 유일하게 고상식의 상부구조로 보이는 목탄과 유물이 다량 노출되었다. 황갈색 청석풍화층에서 주혈 등이 확인되었고, 상부구조는 황갈색 청석풍화층의 상층인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노출되었다. 유구의 확인은 황갈색 사질점토에 덮힌 불탄 15호의 목탄(상부구조)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조사결과 주구는 A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길이 600cm, 폭 45cm, 깊이 8cm 정도이다. 주혈의 배치는 II 형을 띠고 있는데 이 주혈열과 주구는 황갈색 청석풍화층에서 노출되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상부구조의 잔해와 같은 토층면에서는 동쪽에 주혈들이 몇 개 확인되나 상부유구일 가능성이 높기에 서쪽의 II 형주혈열과 관련시킬만한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목탄(상부구조)과 황갈색 사질점토를 제거한 후 황갈색 청석풍화층에서 확인된 일단의 주혈군은 서쪽의 주혈열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배치 상태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청석암반 위의 황갈색 청석



〈도 6〉 주구부건물지 15호 목탄노출상태



〈도 7〉 주구부건물지 15호 주혈노출상태

풍화층에 축조된 건물은 고상식의 건물이며 건물의 사용중에 계속된 퇴적작용으로 폐기된 상부구조의 노출층과 주혈의 노출층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추정된 건물의 규모는 740×430cm정도이다.

최초 상부구조의 노출상태는 소토와 목탄이 뒤섞여 다소 무질서한 상태였는데 2차에 걸친 노출작업으로 다음과 같이 관찰되었다. 서남쪽의 기둥(벽체?)재와 동북쪽의 지붕(바닥?)재로 나눌 수 있다. 기둥으로 판단되는 목재들은 남서~북동으로 나란히 노출되었는데 대체로 폭 12cm정도의 각재 또는 통재로 관찰되며 가장 긴 것은 158cm정도이다. 특히 북서쪽에는 직경 20cm가량의 통재 2매가 확인되었는데 지붕의 하중을 직접 받는 主柱중의 일부로 판단된다. 각 기둥간의 간격은 5cm내외를 보이고 있다. 이 목재들은 서쪽벽면에서 지붕의 하중을 받는 역할과 벽면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재는 기둥재의 파편들과 뒤섞인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폭이 넓고 얇은 판재를 이용하였는데 대략 폭 20cm, 두께 3cm정도이다. 지붕재는 동남~북서로 3매정도가 나란히 노출되었는데 최대길이 155cm가량이 확인된다. 이 판재들을 지붕재라고 판단한 이유는 판재 상부에서 기둥재로 볼 수 있는 목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토된 유물은 주로 목탄을 제거하면서 노출되었는데 대호편일팔, 소옹, 와질대부호, 시루, 방추차, 골제병부도자 외 다량의 토기편이 있다.

특히 목탄제거시 바닥면이 부분적으로 불을 받아 적갈색을 띠고 있어 15호는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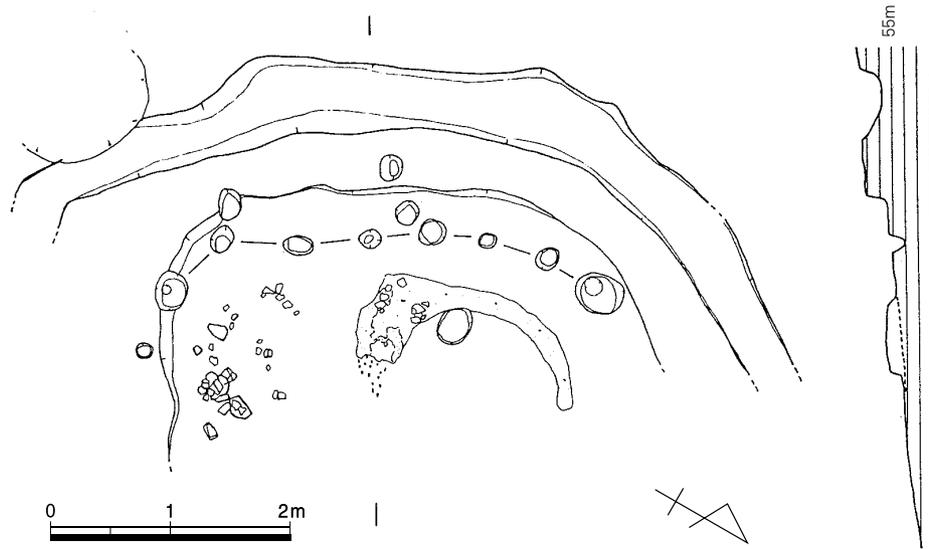
(2) 유물

①와질대부호(도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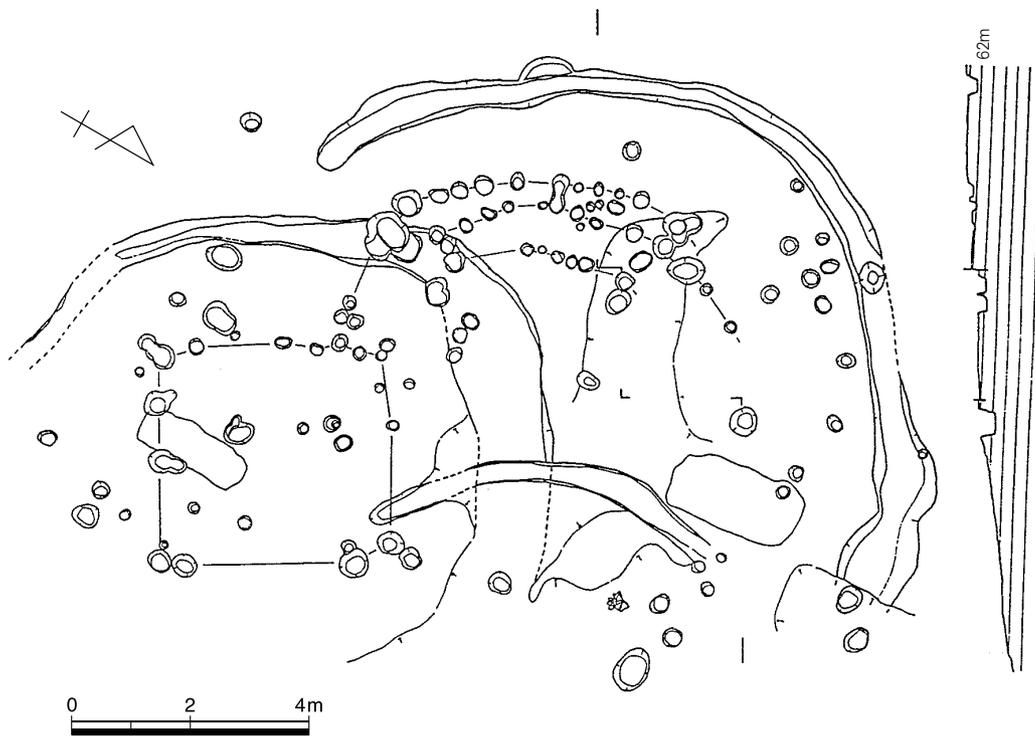
회백색 와질의 대부호이다. 태토는 소량의 사립이 혼합된 정선된 점토이고, 소성은 양호하다. 경부와 동체 1/2이상이 결식된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동체는 편구형으로 동최대경 부위, 동체와 경부의 경계부위, 그리고 그 사이에 각각 4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침선사이에는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동최대경 아래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후, 횡방향의 깎기흔이 일부 관찰된다. 대각에는 전면에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후 종방향으로 정연하게 마면에 의한 暗文이 시문되어 있다. 기내면의 중·하위에는 횡방향의 깎기흔적이, 바닥에는 목리흔이 관찰된다. 현고 15.3cm.

5) 48호(도 8)

F-II 지구 중앙동쪽에 있으며 북쪽에 42호, 43호, 54호 등이 있다. 황갈색 사질점토층에서 노출된 유구는 A형의 주구를 갖춘 地床式의 주거지이다. 주구는 길이 600cm, 폭 50cm, 깊이 20cm정도이고 내부에는 암회갈, 암황갈 점질사토가 차 있었다. 수혈은 평면 말각장방형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390×220×20cm이다. 수혈내부 서벽 직하를 따라 고상식유구의 II형 주혈열이 확인된다. 수혈 중앙부에는 별다른 시설없이 평면 ㄷ자상의 소토, 목탄띠가 관찰되는데



〈도 8〉 주구부건물지 48호



〈도 9〉 주구부건물지 56호

바닥면이 약하게 불을 받아 열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바닥면 가까이에는 1~2mm정도의 아주 얇은 목탄 피막이 입혀져 있다. 수혈내부에서는 주로 남반부에 옹 3점외 다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6) 56호(도 9)

F-II 지구 남서부에 있으며 55호에 주혈일부가 중복되었고, 주구 서쪽 중앙부가 토광 1호에 중복되었다. 청석암반면에서 노출된 유구는 주구가 C형의 평면형태를 보이며 북쪽부분이 경사면 아래쪽인 동쪽으로 길게 확인된다. 전체적인 길이는 1,050cm, 폭 40~120cm, 깊이 25cm정도이다.

주혈의 배치는 II 형의 주혈열이 나란히 3열 확인되는데 각기 다른 유구의 중복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 II 형의 주혈열 동쪽으로는 다른 주혈군이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건물의 평면 형태를 알 수 없다. 주혈열의 최대길이는 560cm정도이다. 주혈의 크기는 대체로 직경 20~60cm, 깊이 10~40cm정도이다.

7) 수습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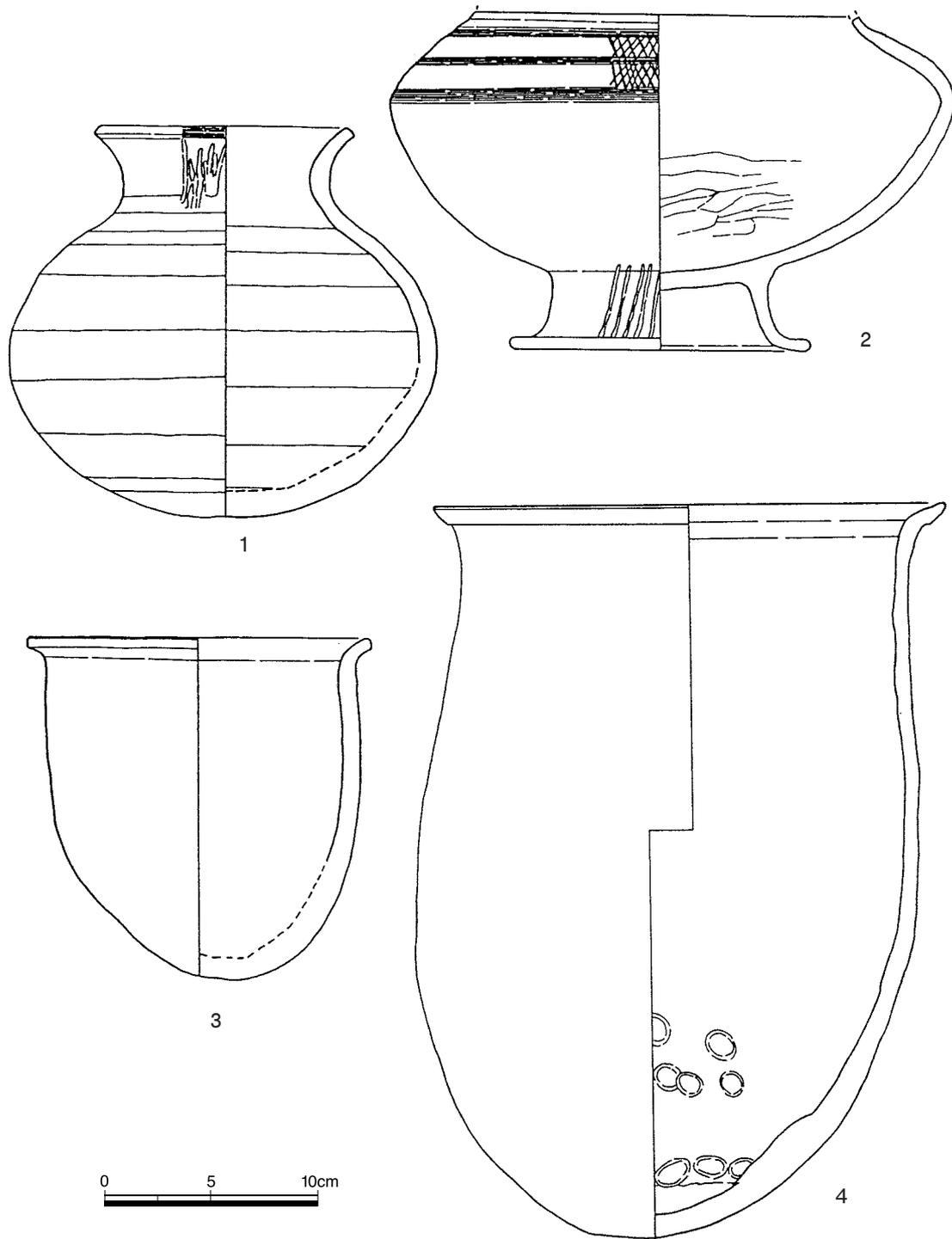
① 장동옹(도 10-4)

소토 10호 동쪽 3m지점에 흩어져 있던 것을 수습하였다. 토기는 명회청색 와질의 원저장동옹으로 거의 도질화된 단계이다. 태토에는 백색사립과 검은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성상태는 양호하다. 구연은 짧게 외경하며, 동체는 최대경이 중하위에 있다. 동체는 비스듬하게 약간 일그러져 있으며, 저부는 원저이다. 기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되었으며 기내면의 동하위와 바닥에는 지두흔과 저부접합흔이 잘 관찰된다. 기고 33.4cm, 구경 23.5cm.

② 옹(도 10-3)

주구부 건물지 15호 북서쪽 2m지점의 유적경계선에서 거의 완형의 옹 2점이 수습되었는데 그 중 1점이다. 회청색 와질의 옹으로 거의 도질화된 단계이다. 태토에는 백색사립과 직경 1~2mm정도의 검은 알갱이가 포함되어있다. 구연은 짧게 외경하며, 구연단은 평탄면을 이룬다. 구연은 타원형으로 일그러져 있으며, 동 중하위도 일부 일그러져 있다. 바닥은 원저이고 기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되었으며, 동체 하위와 저부는 격자타날되어 있다. 기고 15.7cm, 구경 13.5cm.

이상에서 소개한 6기의 유구와 그 외의 조사된 주구부건물지의 주구와 주혈군 배치 형태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와 같다. 단, 표에는 지상식, 수혈식으로 추정된 유구와 부속유구로 추정된 유구는 제외되었다.



〈도 10〉 주구부건물지 출토 및 주변 수습유물

〈표 18〉 주구부건물지 속성조합

주구 \ 건물	I 형	II 형	III 형	IV 형	?	계
A형	2·12·15· 38·39·50· 53·55호	23·24호	7·14·19·28· 31·33·34·37· 41호	·	5·20·49호	22기
B형	16·29호	10·27호	·	·	4호	5기
C형	·	56호	·	17호	·	2기
D형	32호	·	6·8·9·11·13· 18·30·35호	·	3·51호	11기
?	47호	·	36·44· 45·46호	·	·	5기
계	12기	5기	21기	1기	6기	45기

Ⅳ. 맺음말

이상에서 임당 F-Ⅱ 지구에서 조사된 160여기의 유구 및 시설중에서 일부인 주구부 건물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구부건물지의 특징은 사면에 축조된 고상식의 건물지이며 특히 주구가 딸린 유구라는 점이다. 그런데 고상식의 구조이면서 굳이 주구를 설치한 이유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데 기둥과 주혈자체에 대한 보호와 床面아래의 공간활용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점은 필자가 소개한 地床式유구와 豎穴式유구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³⁾ 본유적에서 동일시기, 동일범위내에 다른형식의 유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유구형식의 보편성에 배치된다는 것인데 위에서 소개한 高床式의 유구를 地床式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 48호의 경우 지상식으로 설명하였는데 유구의 상부가 삭평, 유실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이른바 고상식 유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면바닥에서 굴착된 주혈은 주구바닥보다 5~10cm 더 내려간 깊이에서 노출되며 주혈이 노출될 정도로 삭평되었다면 주구는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6호, 14호, 33호, 56호에서와 같이 주구가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연장되는데 그 level 차이가 50~100cm가량이다. 즉 수혈이 삭평, 유실되었는데도 주구가 확인된다는 것은 수혈

3) 먼저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보자면, 高床式은 舊地表에서 床面이 떨어져 있는 것, 地床式은 구지표를 약간 다듬어 평평하게 하고 床面으로 사용하는 것, 豎穴式은 구지표를 깊게 파고 床面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 유구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단, 주구가 수혈 밖에 있고, 수혈의 폭이 좁을 경우는 가능하다. 지상식으로 소개한 42호(표2 참조)가 그런 경우인데, 고상식으로 판단할 만한 주혈배치가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6호, 8호, 9호의 경우 set를 이루는 주혈간의 동-서 level 차이가 40~80cm가량이다. 이 유구를 지상식이나 수혈식으로 판단할 경우 구지표면을 다듬은 床面에서 적어도 50~90cm가량의 柱穴을 파악하며 또한 周溝도(6호의 경우) 많은 양의 흙을 파야할 것이다. 주혈을 청석암반면까지 닿도록 깊이 파야 견고하고 안정된다면, 처음부터 竪穴을 청석암반면까지 파고 주혈을 설치하는 것이 床面の 이용과 더불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넷째, 주구 평면 형태 B형인 二重周溝의 경우, 모두 5기가 확인되었는데 外周의 바닥면이 內周의 바닥면보다 높다. 이 유구를 지상식이나 수혈식으로 판단할 때 수혈내에 높이가 다른 이중의 주구가 있다는 것은 수궁하기 어려우며 달리보아 주구가 수혈밖에 설치되었다고 판단할 때 10호의 경우, 내주와 인접한 주혈열과의 간격으로 보아 그 사이에 수혈 벽면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섯째, 상부구조와 유물 등이 잔존하는 15호의 경우 목탄이 노출되는 면에서도 수혈 등의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았고 목탄과 목탄이 놓인 퇴적층 일부를 제거한 뒤에 주혈이 노출되었다. 이런 사실로 보아 15호가 지상식 또는 수혈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은 필자가 고상식유구로 판단하게 된 이유이다. 본 지구에서 확인된 지상식 유구 6기에 대해 개괄해 보면, 주구 안쪽으로 완만한 평탄면을 가지며 주혈이 별로 없거나(1호, 42호, 57호), 호상의 주혈열을 갖는데(43호, 48호, 52호)모두 중앙부쯤에 부정형의 소토 목탄부가 관찰된다.

본 지구내에서 확인된 周溝附建物址는 모두 58기이며 이중 高床式이 51기, 地床式 6기, 竪穴式 1기이다. 그러나 구지표의 삭평, 유실을 감안할때 고상식의 유구중 일부는 지상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周溝附建物址와 木柵과의 관계이다. 목책은 임당 F지구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주구부건물지 분포범위의 경계를 이루는 유적중앙부의 단애면을 따라 진행하는데 그 하층에서 주구부건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木柵穴內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체로 주구부건물지 주변에서 수습되는 유물과 거의 같은 시기이며 주구부건물지 등이 조영되고 있던 어느 시점에 목책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보아 木柵보다 앞선 시기와 木柵期의 유구로 分期할 수도 있겠으나 각유구들에 공반된 유물의 절대량이 부족하므로 성급히 언급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근접거리에 있는 임당 F지구의 동사면과 I지구의 평지에 동시기로 판단되는 다른 양식의 주거지군이 공존하고 있다.
- 2) I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F-II 지구에서도 주구부건물지간에 중복양상이 보이므로 일시적인 주거지군은 아니다.

3) 다양한 평면형태를 보이는 주구와 주혈배치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AI, AⅢ, DⅢ 형이 주류를 이룬다(AI : 둥근호상의 주구에 둥근호상의 주혈열, AⅢ : 둥근호상의 주구에 (장)방형의 주혈배치, DⅢ : ㄷ자상의 주구에 (장)방형의 주혈배치).

4) 직접적으로 유구와 공반되는 유물이 거의 없으나 주변에서 수습된 유물중 다수가 사진 16-3,4,6과 같은 장동용류이다.

5) 주구부건물지의 조영시기는 대체로 3C末~4C代이다.

6) 주구부건물지가 조영되고 있던 어느 시점에(4C?) 목책이 설치되며 유적의 방어적 성격이 생긴다.

이상의 내용들이 너무 장황하고 무리한 주장임을 스스로 느낀다. 그러나 기왕에 보고된 많은 유적들에서의 지상식, 수혈식 유구들과는 다른점이 너무 많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필자의 좁은 식견이 넓게 보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자료축적과 先學 여러분의 鞭撻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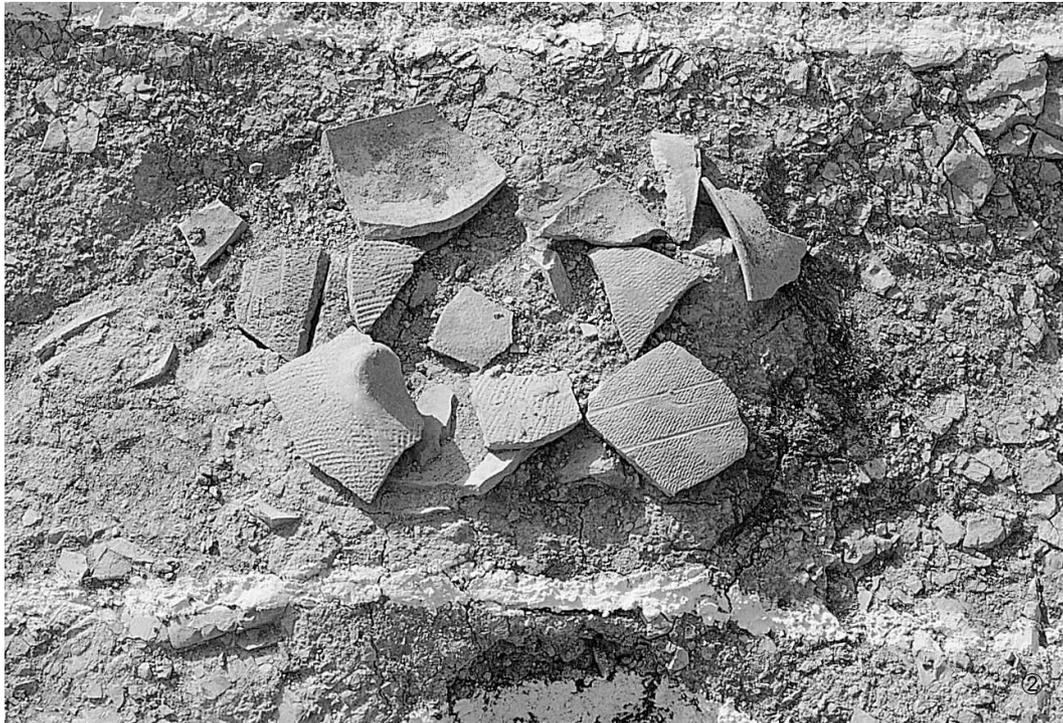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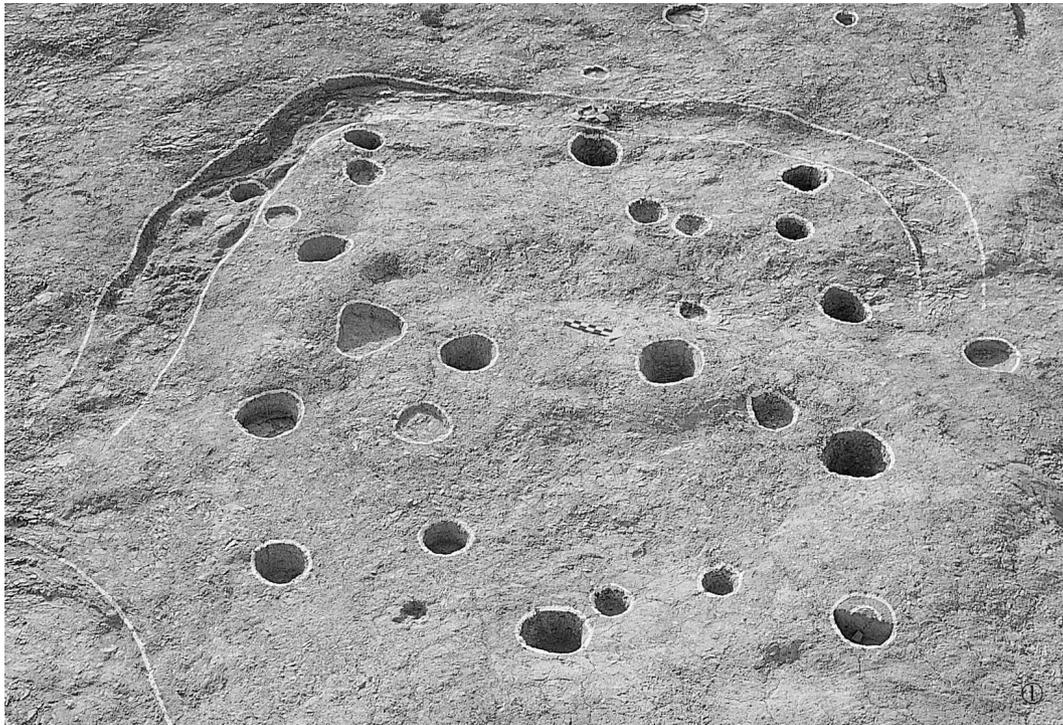
〈표 2〉 주구부건물지속성표

호수	형식	주구/ 주혈배치	주구 규모 (길이×폭×깊이cm)	추정 건물 규모(cm)	출토유물 / 비고
1	지상식	A	600×20~30×15	415×135	14호를 중복
2	고상식(?)	A I	800×24×12	400×220	
3	고상식(?)	DⅢ	515×38×12	400×380(?)	13호에 중복
4	고상식(?)	BⅡ (?)	외주 900×50×20 내주 550×50×10	430×320(?)	
5	고상식(?)	A I	700×20×10	?	
6	고상식	DⅢ	550×30~65×10~15	340×440	주구내 소토, 목탄, 토기편다량
7	고상식(?)	AⅢ	550×40×15	290×?	주구내 소토, 목탄, 토기편다량
8	고상식	DⅢ	450×20×8	400×440	
9	고상식	DⅢ	800×50×12	640×530	
10	고상식	BⅡ	외주 500×60×10 내주 750×46×20	460×320	주구내 목탄, 와질호, 옹 외 토기편, 11호를 중복
11	고상식	DⅢ	660×40~50×10~20	500×420	10호에 중복
12	고상식	A I	750×34×20	500×?	주구내 목탄, 토기편
13	고상식(?)	DⅢ (?)	350×30×10	300×350(?)	3호를 중복
14	고상식	AⅢ (?)	1000×30~50×10	560×320	1호에 중복
15	고상식	AⅡ	600×45×8	740×430	소옹, 대부직구호, 시루, 방추차, 도자와 토기편다량
16	고상식	B I	외주 300×30×12 내주 830×30×16	350×240	
17	고상식(?)	C?	450×60×16	400×?	
18	고상식(?)	D(?)Ⅲ	250×30×12	250(?)×140(?)	
19	고상식	AⅢ	300×30×10	410×210(?)	
20	고상식(?)	D?	270×30×10	?	
21	?	A	350×25×8	?	23호의 부속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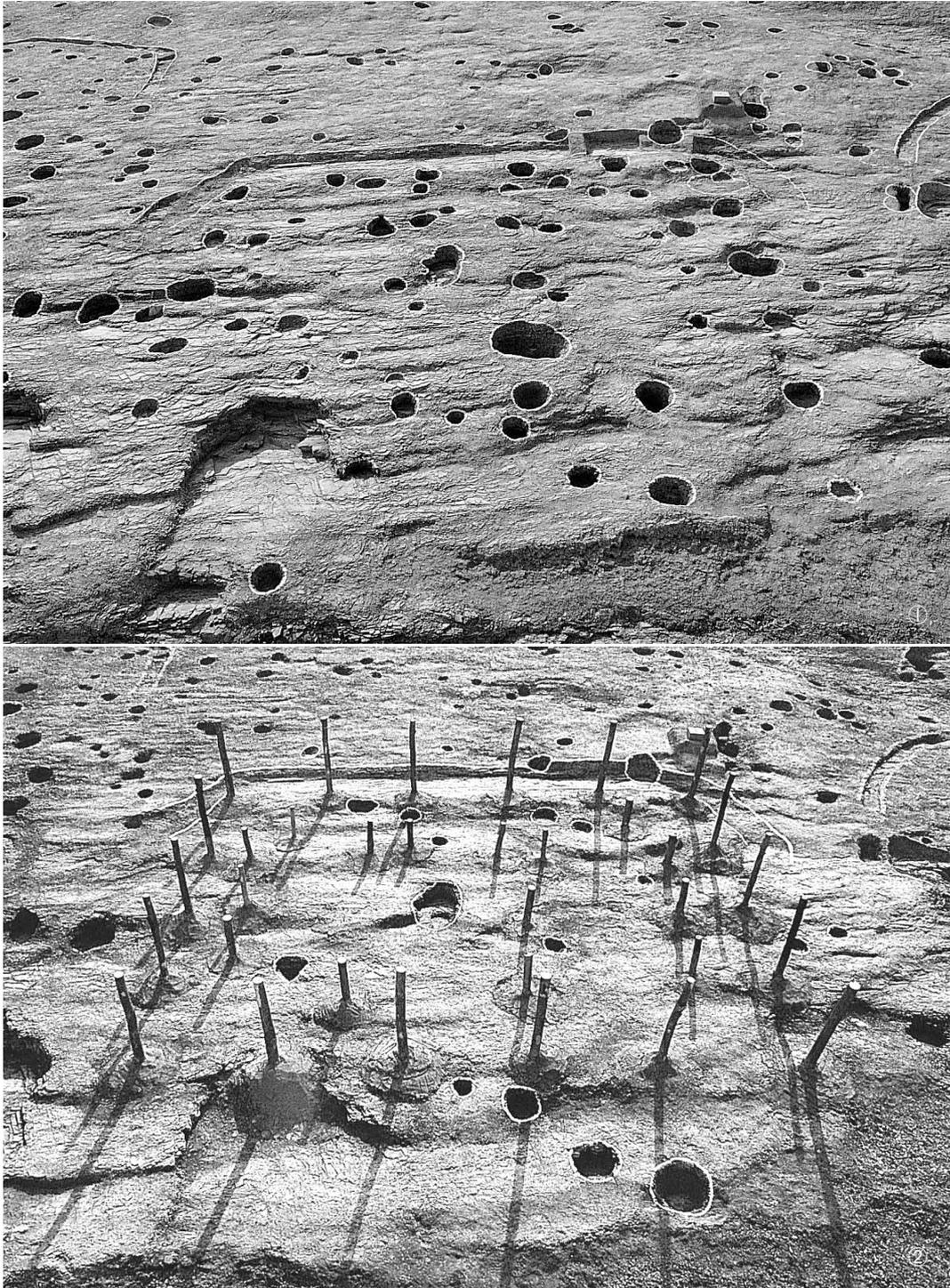
호수	형식	주구/ 주혈배치	주구 규모 (길이×폭×깊이cm)	추정 건물 규모(cm)	출토유물 / 비고
22	?	A	400×30×10	?	23호의 부속시설?
23	고상식(?)	AⅡ	750×60×15	400×?	
24	고상식	AⅡ	750×20×9	480×310(?)	
25	?	A	200×20×5	?	24호의 부속시설?
26	?	A	250×20×5	?	24호의 부속시설?
27	고상식(?)	BⅡ	외주 210×30×7 내주 350×40×9	460×?	
28	고상식	AⅢ	200×20×5	500×380(?)	
29	고상식	BⅡ(?)	외주 750×70×30 내주 520×20×10	430×460(?)	주구(외주)내 대호편의 토기편다량
30	고상식	AⅢ	(350)×40×10	440×300	
31	고상식(?)	AⅢ	240×30×10	540(?)×540(?)	
32	고상식	DⅠ	800×10~40×10	680×360	
33	고상식	C(?)Ⅲ	650×20~60×10	500(?)×420(?)	
34	고상식	AⅢ	300×30×10	400×340	
35	고상식	DⅢ	200×20×2	400(?)×180(?)	
36	고상식(?)	?Ⅲ	?	420×310(?)	
37	고상식(?)	AⅢ(?)	750×50×10	?	
38	고상식(?)	AⅠ(?)	450×40×18	480(?)×?	
39	고상식(?)	AⅠ	850×40×20	590×?	주구내에 소토, 목탄, 토기편, 동물뼈
40	?	A	450×30×10	?	39호의 부속시설?
41	고상식	AⅢ	750×25×20	600×420	
42	지상식	C	1100×80~110×30	300(?)×200(?)	43호에 중복
43	지상식	C	820×50~60×20	440(?)×260(?)	용1점외 토기편, 42호, 54호를 중복
44	고상식	?Ⅲ	?	440×180	
45	고상식	?Ⅲ	?	330×300	
46	고상식	?Ⅲ	?	850(?)×640	
47	고상식	?Ⅰ	?	690(?)×260(?)	
48	지상식(?)	A	600×50×20	390×220(?)×20	용3점외 토기편
49	고상식(?)	A?	(300)×40×20	?	
50	고상식	A(?)Ⅰ	450×50×25	350×400	건물지 주위에 소토, 목탄, 방추차외 토기편다량
51	고상식	D?	1100×50~70×20	건물지A 420(?)×380(?) 건물지B 400(?)×400(?)	54호에 중복
52	지상식	·	주구없음	360(?)×180(?)	
53	고상식	A(?)Ⅰ	350×70×10	340×380(?)	
54	수혈식	·	·	500(?)×214×36	43호에 중복
55	고상식	AⅠ	900×40~150×20	420×370	
56	고상식	CⅡ	1050×40~120×25	560×?	55호에 중복
57	지상식	A	650×40×10	?	
58	?	C?	570×30×15	?	55호에 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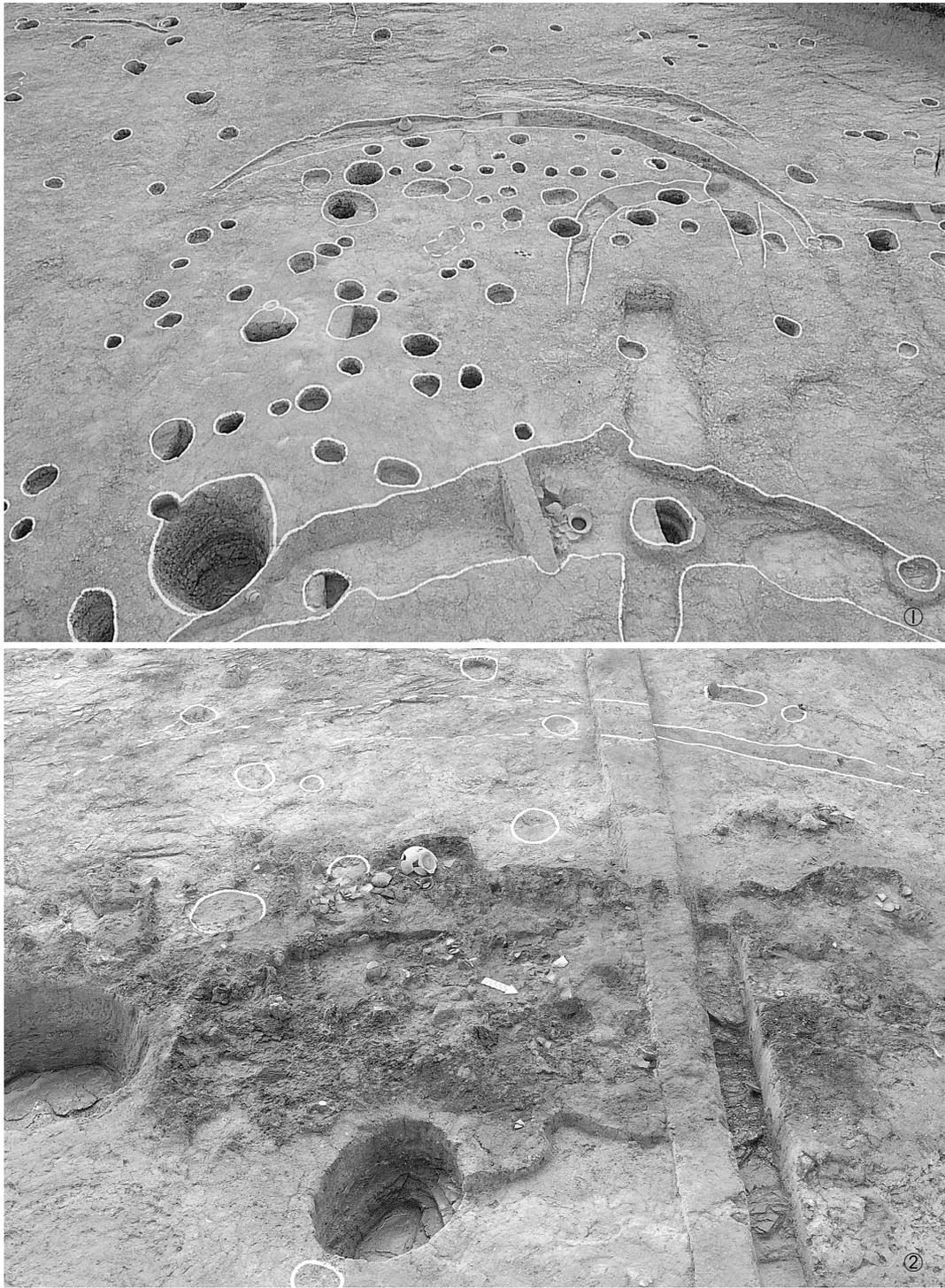
〈사진 1〉 ① 임당 F-Ⅱ지구 전경, ② F-Ⅱ 주구부건물지 전경



〈사진 2〉 ① F-Ⅱ 주구부건물지 6호 전경 ② 6호 구내 유물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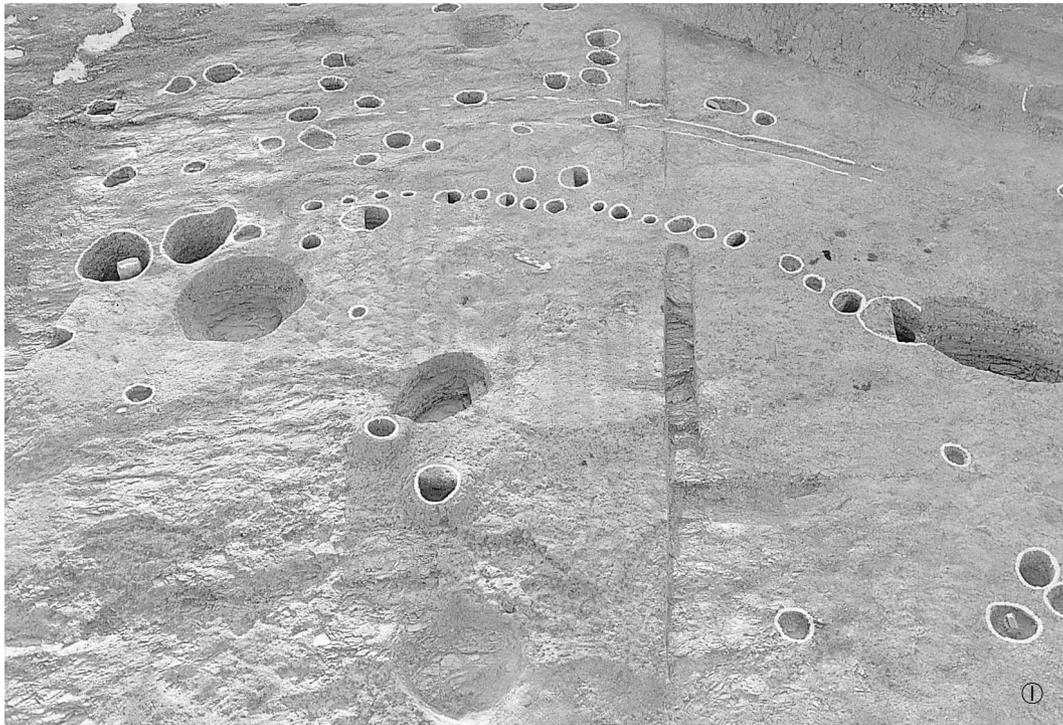
〈사진 3〉 ① F-Ⅱ 주구부건물지 9호 전경 ② 6호 복원전경



〈사진 4〉 ① F-II 주구부건물지 10호 전경 ② 15호 전경



〈사진 5〉 ① F-Ⅱ 주구부건물지 15호 유물노출상태 ② 15호 목탄노출상태



〈사진 6〉 ① F-Ⅱ 주구부건물지 15호 전경 ② 15호 하부 주혈군



〈사진 7〉 ① F-II 주구부건물지 48호 전경 ② 56호 전경



〈사진 8〉 주구부건물지 출토 및 주변 수습유물

金屬遺物の 科學적 保存 · 復元처리

-浦項 玉城里古墳群 출토 頸甲의 復元 및 保存 처리를 중심으로-

장경숙*

〈 목 차 〉

I. 머리말	2. 보존처리 과정
II. 金屬遺物の 科學적 保存處理과정	3. 4세기대 頸甲의 復元과 문제점
III. 頸甲의 復元 및 保存處理	IV. 맺음말
1. 보존처리전 상태	

I. 머리말

대부분의 金屬遺物은 밀폐된 매장환경내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부식이 진행된다. 하지만 발굴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부식의 속도는 급속하게 진행되어 대개 2~3년내에 파편 또는 분말상태로 변하여 考古자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출토된 금속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는 유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과 염화물을 제거하고 약화된 유물의 재질을 硬化처리하여, 보관하는 동안의 부식을 방지하거나 그 속도를 늦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보존처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文化財의 技術적인 檢査, 保存, 維持, 補修 등으로 개념지을 수 있다. 검사는 유물의 본래 구조와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을 결정하고 그 유물의 변질과 손실의 정도 등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기 위해 취하는 첫번째 절차이다. 보존은 유물을 가능한한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시키고, 또한 그 유물의 환경을 통제하고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유물의 약화나 훼손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위이다.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보수는 미학적이고 역사적인 원형을 최소한으로 희생시켜 악화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금속유물의 보존처리과정과 그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최근 浦項 玉城里유적에서 출토된 鬲甲의 보존처리 및 복원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金屬遺物의 과학적 保存處理과정

1. 예비조사

보존처리를 실시하기 전 금속유물의 처리전 형상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유물 내부구조를 확인하여 보존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1) X-ray 비파괴 조사 - 부식의 정도와 소지금속의 잔존사실을 확인하고, 象嵌과 같은 장식 기법 확인, 제작기법과 구조 등을 확인한다.

2) 보존처리전 상태기록 - 부식 및 파괴상태를 기록하고 고고학적인 형태를 기록하며 보존처리에 사용한 기기 및 약품을 기록한다.

3) 사진촬영 - 현미경 사진을 통해 섬유질 등 미세부분을 촬영하고, 일반 사진을 통해 보존처리 이전의 유물 상태와 처리과정을 촬영 기록한다.

4) 분석 - 정성분석에는 형광 X선분석과 형광분광분석등이 사용되며, 정량분석에는 원자흡광분석과 중성자방사화분석법등이 있다. 그리고 구조 분석에는 X선 회절분석법등이 이용된다.

2. 녹제거

녹제거의 목적은 유물 본래의 형태를 표출시켜, 형상을 명확히 하고 유물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다. 녹제거는 유물의 고고학적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유물의 상태에 따라 먼저 경화처리를 실시한 후 녹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1) 물리적 방법

① 정밀분사가공기 - 고압의 질소 가스에 Glass Bead를 섞은 혼합가스를 고속고압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유물표면에 분사시켜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유물, 석재, 경질토기 등 비교적 강한 유물의 녹이나 이물질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② 초음파 세척기 - 세정액 또는 증류수 속에 유물을 넣고 초음파를 발생시켜 유물의 미세한 녹 및 부식화합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유물, 섬유, 피혁 등의 미세녹이나 곰팡이, 먼지 등을 제거하는데 적용된다.

③ Vibro tool, Motor tool - 떨림과 회전하는 힘에 의하여 녹 및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으로 철제 · 청동 · 금동 유물 등 비교적 단단한 유물의 녹제거에 사용된다.

④ 치과용 소도구 - 보존처리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치과에서 치아를 다룰 때 사용하는 각종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유물 전반, 토기, 해양출토 도자기, 석재 등에 적용된다.

⑤ 유리섬유솔 - 유리 섬유를 모아 만든 연필형의 솔로, 은제품, 청동제품 등 얇은 부식산화물 제거 및 광택을 요하는 금속제품의 녹제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2) 화학적 제거법

① 개미산법 - 0.5~1.0% 등 유물의 상태에 따라 다른 농도의 개미산 용액을 제조하여 Water Absorbent에 흡수시켜 제거하고자 하는 녹표면에 밀착시켜 녹을 용출시키고, 물로 세밀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도금피막이 나타날때까지 처리한다.

② 알카리글리세린법 - 증류수 1ℓ에 수산화나트륨 120g을 넣어 녹인 후 글리세린 40ml를 섞어 만든 용액에 유물을 침적시켜 개미산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③ 황산법 - 증류수에 3% 황산용액을 제조하여 면봉에 용액을 묻혀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면서 닦아내어 준다. 주로 붉은색 청동녹의 제거에 사용된다.

3. 안정화 처리(탈염처리)

금속유물이 함유하고 있는 염화물 이온은 금속유물을 부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좋은 보존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식 요인이 되는 염화물 이온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1) Sodium Sesquicarbonate법 - 0.5~3.0% 의 Na_2CO_3 와 NaHCO_3 용액을 제조하여 60℃ 항온수조내에서 유물이 완전히 잠기도록 밀봉시켜 처리하는 방법이다. 처리기간은 유물의 상태에 따라 1일이나 1주일 단위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Cl농도가 10ppm이하 일때까지 처리하며, 철제유물과 동제유물의 탈염에 사용된다.

2) 냉온수 교체법 - 유물을 수조에 넣고 반복하여 냉온수에 침적시키는 방법으로 100℃ 증류수에 침적한 후 자연상태에서 60℃로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여 냉수에서도 같은 시간을 침적시키는 것을 1회로 한다. 주로 알칼리용액으로 탈염처리한 다음, 남아있는 염화물과 알칼리용액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Cl농도가 10ppm이하일 때까지 반복한다.

3) Alkaline Sulphite법 - 환원환경에서 염화물을 제거하고, 유물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발굴된 철제유물에 있어 부식이 심한 경우 파손될 우려가 있어 상당히 안정된 유물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4) Lithium Hydroxide법 - 수용액속에 침적하여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유기용매인 메탄올에 0.2%의 Lithium Hydroxide를 용해시켜 침적시키는 방법으로, NaOH 법보다 비효율적이지만 철제유물의 표면세척과 건조처리가 용이하다.

5) Sodium Hydroxide법 - 증류수에 일정량의 Sodium Hydroxide를 용해시켜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물의 상태에 따라 0.5%~3%의 농도로 비교적 강한 재질의 유물처리에 적용된다.

6) Soxhelt Extractor법 - 플라스크 속에 유물과 증류수를 넣어 가열시켜, 냉각된 증기를 다시 유물이 담겨있는 플라스크 속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가열해 주면 철제유물내에 함유되어 있던 염화물이 추출된다. 증기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질소가스 20cmhg정도의 감압하에서 처리한다.

7) Auto-clave법 - 고압솥에 냉온수 교체법과 Sodium Sesquicarbonate법을 병행하여 1.5기압 80℃에서 염화물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든 금속유물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혐기성 철 산화 박테리아의 제거는 가능하지만 약한 유물의 경우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8) H plasma환원장치 - 기체중에 전극을 설치하여 방전하면 기체분자는 이온과 전자가 혼합된 plasma 상태가 된다. 이 기체 plasma로 유물표면에 충격을 주어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부식이 심하지 않은 금속유물에 효과적이며 Soxhlet 장치법의 처리에 앞서 전처리법으로 이용된다

9) Soxhlet 장치법 - Soxhlet 장치는 Auto-clave법과 냉온수교체법을 혼합 자동화한 장치로 유물을 1.5기압 80℃ 증류수를 넣고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2시간 단위로 Cl 이온을 측정하여 변화가 없을때까지 추출하는 방법이다. 모든 금속유물에 작용하며 비교적 적은 시간이 소요되나 H plasma환원을 시켜야 효과가 극대화 된다.

4. 방청처리

유물이 재부식되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 부식억제제를 유물표면 또는 내부에 주입시키는 과정이다.

1) B·T·A처리법 (1,2,3-Benzotriazol) - 금동 및 동합금유물의 부식억제제로 3%의 B·T·A용액을 에칠알콜이나 증류수에 용해시켜 진공함침 또는 24시간 정도 침적시켜 처리한다.

2) D·A·N처리법 (Dicyclohexyle Ammonium Nitrite) - 철제유물의 부식억제제로 에칠알콜에 0.3% 정도 희석시켜 사용한다.

3) KR-TTS 처리법 - 철제유물의 부식억제제로 크실렌 용액에 3%정도 희석시켜 2시간 이상 침적시킨다.

5. 건조처리

탈염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알콜을 이용하여 유물내에 남아있는 수분을 치환해 준 다음 건조기를 이용하여 유물에 잔류해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다. 대개 100℃내외의 온도에서 완

건조조건을 시키지만, 유물에 유기질이 부착된 경우 50~70℃정도로 온도를 낮추어 완전 건조해 준다.

6. 경화처리

금속이 부식되면 금속특유의 성질인 연성·전성을 상실하여 재질이 약화된다. 약화된 금속 유물에 수지를 주입하고 코팅시킴으로서 약화된 유물을 강화시키고 공기 중의 부식인자를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1) 강화법

① 진공함침법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진공탱크에 유물을 넣고 진공시킨 후 수지를 주입하여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금속유물, 연질도기 등 연약한 무기재료 유물에 적용하며 수지도포보다 깊이 침투되며 시간이 짧고 효과적이다.

② 가열용융법 - 유물과 Wax류를 함께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용융시켜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금속유물과 수침목재유물에 적용된다.

③ 자연함침법 - 수지에 약화된 유물을 침적시켜 자연적으로 유물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부식이 심하지 않은 금속유물, 두께가 얇은 동제유물에 적용된다.

2) 강화제

① Ruscost - 아크릴 수지로 철 부식억제제가 들어 있으며 10~30%의 용액을 자연함침 또는 진공함침시켜서 철제유물을 강화시킨다.

② Paraloid B72 - 아크릴 수지로 아세톤에 3~20%로 용액을 희석시켜 사용하며, 유기질을 비롯한 철제유물 등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화제이다.

③ Paraloid NAD10 - 아크릴 수지이며 나프타에 10~20%로 희석하여 사용하여 철제유물의 경화처리에 주로 사용된다.

④ Incralac - 아세톤과 톨루엔 1:5 용액에 Paraloid B72 14.6%와 B.T.A 0.4%를 섞어 용액을 제조하여 동 및 금동유물을 경화시키는데 사용한다.

⑤ P.E.G(Poly Etylene Glycol) - 수침목재의 강화제로 사용되며, 증류수에 5~100%의 용액을 항온상태로 가열하여 경화처리한다. 저농도에 고농도로 농도를 높혀 가면서 함침강화 처리한다.

7. 접합 및 복원

파손된 유물의 원형을 회복하고 결실된 부위를 보완하여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처리로, 가능한 발굴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재처리가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Cellulose수지(Cemendine C) - Nitro Cellulose 약 75%와 Camphor 약 25%의 반

합성수지로 사용 가공성은 우수하지만 접착력이 떨어지며 아세톤 등의 유기용제에 잘 용해된다. 발굴현장의 가접합용 및 관상유물의 접합에 사용된다.

2) Acryl수지(순간 접착제) - 열경화성 수지로 목재용과 금속용이 있으며, 금동관과 같이 얇고 강한 접착력을 요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3) Epoxy수지(Araldite rapide) - 분자의 양끝이 Epoxy기로 되어 있고 경화제에 의해 중합반응하여 경화되는 열경화성 수지로 접착성,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수성이 우수하나 가역성이 없어 수지처리가 안된 유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Phenolic수지 - 분자에 Phenolic이 있는 고체 첨가축합계수지로 내역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주로 사용되는 Micro Balloon은 접합복원시 기공발생 방지 및 가공성을 주 기위해 접합복원제와 섞어 사용한다.

Ⅲ. 頸甲의 復元 및 保存處理

1. 보존처리전 상태

浦項 玉城里 29호분 木槨墓의 서쪽 단벽에서 출토된 경갑은 발굴 당시 이미 교란되어 원래의 형태가 파악되지 못한 채, 몇 단계에 걸쳐 수습되었다. 먼저 대호 내부와 주변에 깨어진 채로 흩어져 있었던 잔편들이 수습되었으며, 다음으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던 地板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포성 폴리 우레탄 폼으로 수습되고, 이들 중 가장자리의 잔편 일부는 발포성 폴리 우레탄 폼으로 수습하기 전, 임의로 분류하여 먼저 수습되었다.

처음 수습된 대호 내부에서 출토된 철판들은 2~4개 정도로 추정되는 깨어진 地板들과 수십 조각의 잔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의 표면은 철산화물과 흙이 뒤엉켜 형성한 게타이트층으로 덮혀 있었으며, 심각한 부식으로 인해 내부까지 완전히 산화된 상태였다. 일부 지판에서는 미세하나마 혁철에 사용된 가죽흔이 남아있었다.

발포성 폴리 우레탄 폼으로 수습된 철판들은 7~9개 가량의 地板을 포함하고 있으며, 왼쪽에 파고 든 나무뿌리에 의하여 심하게 교란된 상태였다. 유물은 부식의 진행으로 심하게 깨어지고 약해진 상태이며 가장자리의 편들은 먼저 수습되거나 결실된 상태였다. 제일 윗쪽에 방형의 짧은 지판 3매가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에 이들보다 긴 地板 3매 정도가 포개져 있으며, 바닥에는 후방부지판으로 추정되는 2~3매의 장대형 지판이 엮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유물 표면은 흙과 부식산화물이 엉겨 단단하게 고착된 상태이며, 제일 윗쪽에 보이는 지판에서는 가죽흔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발포성 폴리 우레탄 폼으로 수습하기 전에, 먼저 수습된 편들은 형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수십

개의 잔편들로서, 우레탄 폼으로 수습된 지판의 하단부나 가장자리편으로 추정되었다.

2. 보존처리 과정

1) 발포성 폴리 우레탄 폼 해체

발포성 폴리 우레탄 폼을 둘러싼 板材를 모두 벗겨낸 후, 유물층에서 상단 10cm가량을 남기고 줄톱 등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잘라내었다. 유물을 감싸고 있는 한지층에 도달할 때까지 cut칼과 치과용 소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발포성 폴리 우레탄 폼을 절단해 나갔다. 우레탄 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유물을 덮고 있던 한지를 걷어내자 이암제의 암반층 잔돌과 굵은 사질토가 붙어 있는 유물이 드러났다. 유물은 부식이 진행되어 약해진 상태이며 왼쪽에 파고들어 간 나무뿌리에 의해 심하게 교란되어 수십 조각으로 깨어져 있었다.

수습시 발생할 수 있는 교란을 방지하고 유물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방안지위에 간단한 실측도를 작성하여 수습할 바트에 부착하고 그 실측도를 중심으로 철판들을 배치해 나갔다. 제일 윗부분의 수습이 끝난 후, 그 아래단에 드러난 상황을 기록하고, 다시 간단하게 실측도를 작성하여 먼저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수습하였다.

2) 녹제거

유물 표면에 고착된 흙을 흐르는 물에서 세척하여 간단히 떨어지는 것만을 먼저 닦아 내었다. 이 과정에서 흙 속에 가리워져 있는 가죽흔이나 유기물질이 제거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세척후 자연건조 시키면서 노출된 가죽흔 및 유기질은 낮은 농도의 Paraloid B72 용액을 수차례 도포하여 먼저 경화처리해 두었다.

유물표면에 흙과 산화물이 혼합되어 단단하게 고착된 Geothite층은 Air Brasive(정밀가공 분사기)를 사용해 Glass Bead와 질소가스의 혼합물을 초음속으로 분사하여 제거하였다. 이때 이미 노출된 유기질과 Geothite층에 가려진 유기질의 존재를 감안하면서 조심스럽게 작업하였다.

Air Brasive 작업후 철판에 잔존해 있는 가죽흔과 유기질을 다음 처리과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낮은 농도의 Paraloid B72 용액을 수차례을 도포하여 경화처리 하였다.

3) 안정화처리(탈염처리)

녹제거가 완료된 유물은 에칠알콜로 세척한 다음, 수습한 상태 그대로 4개의 균으로 나눠 작은 플라스틱 망상자속에 분류하여 넣었다.

유물속에 내재된 부식인자인 염화물을 제거하기 위한 탈염처리는 냉온수 교체법과 Sodium Sesquicarbonate을 선택하여, Na_2CO_3 와 NaHCO_3 0.5% 용액을 제조하여 침적시키고 항온수조에 넣어 1일 8시간씩 60℃ 가열하여 4회 처리해 주었다. Sodium Sesquicarbonate법 처리완료 후 탈염처리와 탈염처리에 사용된 Sodium의 중화처리를 겸하여 항온수조 내에서 냉온수교체법을 3회 실시해 주었다.

4) 건조

탈염처리가 완료된 유물은 유물 내부에 품고 있는 수분을 치환시키기 위해 알콜에 24시간 침적시켰다. 이후 70℃ 열풍순환건조기에서 7일간 처리하여 완전건조시켰다.

5) 경화처리

약화된 유물의 경화처리는 아크릴계 수지인 Paraloid NAD 10 20%용액을 사용하였다. 진공함침기를 이용해 60cmHg 감압상태에서 2회 진공함침하여 약화된 재질을 강화하고 표면피막을 형성시켜 유물과 외부의 부식인자를 차단시켜 주었다.

6) 접합처리

유물의 접합복원에는 순간접착제와 Araldite 그리고 Cemendine C 등을 사용하여, 각 유물편의 특성에 따라 접합제를 골라 처리해 주었다. 접합부위 중 충진시킬 필요가 있는 부위는 Araldite와 Micro Balloon과 천연안료를 섞어 매워 주었다.

7) 복원처리

접합처리가 완료된 地板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하여 X-ray 촬영을 실시하였다. X-ray 판독 결과, 경갑의 地板은 폭에 따라 횡으로 각각 2~5개의 투공이 뚫려 있으며, 또 세장한 地板은 길이에 따라 6~10段的 투공이 뚫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地板과 地板끼리의 복원에 앞서, 먼저 X-ray 판독 결과를 참고로 하여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한 우측 지판을 중심으로 경갑의 복원모식도를 제작하였다.

각 지판은 출토상태에서부터 심하게 교란되어 있었다. 우측 1~3번째 지판의 경우 상단에 올려진 토기에 의해 눌러진 상태이고, 비교적 경갑지판의 곡률을 잘 유지하고 있는 後方部 地板들까지도 깨어진 상태로 오랜 시간 교란되어 접합복원의 결과 제각기 다른 변형된 곡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기간의 교란으로 인하여 각 地板 몇몇 부위가 결실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표된 경갑출토 자료와 경갑의 각 지판이 대개 좌우대칭적인 경향을 보임을 고려하여 결실된 부위를 복원해 주었다. 결실된 부위가 좁은 곳에는 Araldite와 Micro Balloon과 천연안료를 섞어 매워 주었고, 지판의 넓은 부위가 결실된 경우는 HV427과 SV427을 이용하여 결실된 부위의 지판을 따로 만들어 곡률을 조정한 후 원래의 지판에 접합하였다.

경갑의 총체적인 복원에 앞서 복원모식도와 지금까지 발표된 경갑자료를 토대로, 좌우대칭적인 경갑의 배치를 기본으로 좌우를 보완해 가면서 일반적인 경갑의 형태에 근접하도록 복원하였다. 복원된 부위의 고색처리는 처리후의 고고학적 고찰을 고려하여, 한쪽면(평면상태)을 선택하여 처리해 주고 나머지 한면은 복원된 상태 그대로 남겨 두었다. 고색처리는 미세한 녹가루를 복원부위에 가볍게 뿌려 유물의 질감을 살린 후 천연안료와 경화제를 섞어 주위의 색감과 비슷하게 색맞춤해 주었다.

3. 4세기대 頸甲의 復元과 문제점

1) 頸甲의 復元(표1 참조)

頸甲의 평면형태는 圓形이며 모두 17매의 지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地板은 正後方の 세장방향지판을 중심으로 左右側 각각 8枚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地板을 내측으로 중복시키면서 前方에서 後方으로 순서대로 돌리고 正後方에 가장 긴 세장방향지판 1枚를 내측에서 덧대어 左右의 형태를 마무리하였다.

頸甲은 前方에서 後方으로 갈수록 地板의 길이가 길어지고 외반도도 커진다. 地板의 형태는 前方部는 장방형이나 後方部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져서 세장방형을 이룬다.

橫結을 위한 투공은 地板에 따라 각기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표1 참조). 우선 左側 첫번째 地板부터 4번째 地板까지는 4~5列의 투공을 가진 2조의 橫結孔을 가지고 있으며, 5번째 地板부터 8번째 地板 그리고 正後方の 세장방향지판은 각각 橫으로 4~5列의 투공을 가진 3조의 횡결공을 가지고 있다. 右側의 지판은 左側과 유사하다.

橫結기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右側 1번째 地板을 통해 살펴보면, 가죽끈이 X자 형태로 엇갈리면서 橫으로 연결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橫結형태는 좌측 5번째 지판의 가운데 횡결공에서도 1조가 보인다.

覆輪孔은 地板 最上緣에 4~5열이 뚫려 있고, 最下緣단에 2~4열이 있으며, 좌우 개폐부에는 중방향으로 뚫려 있다. 覆輪의 흔적은 몇몇 지판의 상·하단에 조금씩 남아 있으며, 복륵기법은 극히 일부분이긴 하나 좌측 1번째 地板에 비교적 잘 남아 있다. 地板의 外緣을 1cm내외의 가죽띠가 'ㄷ' 자상으로 감싸고 있으며 그 위에 가죽끈으로 박음질하듯 고정시켰다. 이는 경갑의 전체 외연에 革皮로 覆輪한 후 박음질하듯 가죽끈으로 고정시켜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頸甲復元の 문제점

頸甲은 雙楹塚壁畫에 잘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착장자의 목을 보호하는 찰갑의 부속갑옷으로, 주로 찰갑 및 부속구와 함께 출토되거나 단독으로 출토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출토된 경갑자료는 주로 5세기대 景南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시기적이고, 지역적인 限定性을 보여왔다. 5세기대 頸甲의 특징을 살펴보면, 前期로 편년되는 동래 복천동 21.22호분의 경갑은 다수의 장방형 지판을 가죽끈으로 橫結하여 제작하지만, 中期인 동래 복천동 10.11호분 출토 頸甲은 2孔1條 橫결공 중 1孔만을 이용하여 釘結하고, 覆輪기법도 현대복륵 후 철판으로 다시 覆輪하여 제작기법적인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다. 後期로 편년되는 옥전 M3호분 출토 頸甲은 못을 이용한 釘結기법이 사용되고 개폐장치도 가죽띠 경첩이나 고리경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5세기대 頸甲과 달리, 옥성리 고분군 29호분 출토 頸甲은 4세기 후반대의 유구에서 출토된 자료로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경감 지판의 형태

일련 번호	地板	크 기	x자형橫結孔	覆輪孔	가죽흔	비 고
1	左 1	11.1×7.5×6.0	2조 上 4 下 3(4)	上 4 下 3	裏-가죽흔 裏-지판끼리 연결하는 가죽흔 저단에 복륵흔	
2	2	10.6×6.3×5.0	2조 上 4 下 4	上 4 下 4	저단 복륵흔	
3	3	12.8×7.5×7.0	2조 上 5 下 5	上 5 下 3	裏- 횡결흔	
4	4	15.9×8.2×5.2	2조 上(4) 下 4	下 2 2열 1단		상단결실
5	5	17.8×9.3×5.8	3조 上 5 中 4 下 4	上 5, 下 3 1열 1단 2열 1단	表-1조 X자상 횡결흔	
6	6	(21.5)×(8.0)× (6.0)	(3조) 中 4			상·하단결실
7	7	23.2×8.0×5.5	3조 上 4 中 4 下 4	上 4		하단결실
8	左 8	26.6×9.6×5.6	3조 上 5 中 4 下 4	上 5, 下 2 3열1조		
9	正後方 地板	26.7×9.6×7.0	3조 上 5 中 4 下 4	上 5 下 3 3열1조	저단 복륵흔	
10	右 8	26.0×9.0×6.2	3조 上 4 中 4 下 4	上 5 下 1(2) 3열1조		
11	7	(18.3)×6.5×5.6	3조 추정 中 4	下 3 3열1단 2열1단		상단결실
12	6	21.4×8.6×5.9	3조 上 4 中 4 下 4	上 5 下 2 3열1단	裏-2조 가죽흔	
13	5	20.2×7.8×5.5	3조 上 5 中 2(4) 下 3(4)	上 5 下 2 3열1단		
14	4	16.6×8.0×4.7	2조 上 3(4) 下 4	上 3(4) 下 2 2열1단		
15	3	14.1×7.0×5.4	2조 上 4 下 4	上 4 下 2 3열1단	저단 복륵흔	
16	2	12.1×8.9×6.1	2조 上 5 下 4	上 5 下 2 3열1단	裏-지판끼리 연결하는 가죽흔 저단 복륵흔	
17	右 1	11.9.×8.3.×6.6	2조 上 5 下 4	上 5 下 2 3열1단	表-2조X자상 횡결흔 裏-가죽흔 개폐부 복륵흔	

첫째, 5세기 후반대로 추정되는 남원 월산리 경갑이 총 13枚 지판으로 제작된 것을 제외하면 대개의 頸甲은 20枚이상의 지판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포항 옥성리 29호분출토 경갑은 17매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지판의 형태는 일반적인 방형에서 세장방형의 형태를 지니지만 지판의 폭이 9.6cm~6.3cm로 2cm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지판의 길이 또한 개폐부 지판은 10cm내외이지만 正後方部 地板은 26cm로 前方에서 後方을 갈수록 급격히長大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지판끼리의 연결을 위한 투공의 구성 또한 기존 출토품이 비교적 2공 1조의 정형성을 보이지만, 옥성리 29호분 출토 경갑은 각 지판의 형태에 따라 비정형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즉 폭의 차이에 따라 橫으로 3~5개의 투공이 뚫려 있으며 길이의 차이에 의해 6段~10段의 차이를 보인다.

넷째, 기존 頸甲 자료에서 橫結하는데 사용되는 革結技法과는 다른, 특이한 X자상의 횡결기법이 사용된다.

頸甲의 復元은 기존의 경갑출토 자료와 X-ray 촬영 판독결과 그리고 보존처리과정에서 관찰된 지판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복원모식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원처리과정을 통해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첫째, 頸甲의 각 地板은 출토된 상태에서부터 심하게 교란되어 있어 경갑의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접합처리의 결과 이미 각 지판의 자연스러운 곡률은 왜곡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판과 지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갑의 형태에 근접하도록 복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革結技法에 있어, 횡으로 연결하는 X자상의 가죽흔이 잔존하지만 2枚의 지판에만 한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경갑의 제작기법에 대한 완전한 기술적인 복원이 가능하지 않았다.

셋째, 5세기대 頸甲출토 자료를 검토해 보면, 경갑과 찰갑을 연결하기 위한 투공이 最下緣 복륜공 상단이나 지판 하단 중앙에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옥성리 29호분 경갑의 경우 最下緣 복륜공 위에 3~4열의 투공이 배치되며, 地板의 길이에 따라 1段~2段의 차이를 보인다. 또, 대개의 횡결공이 어깨에서 등쪽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한 지판의 장대화에 따라 포물선상으로 배치되는데 반해, 일정한 간격을 가지면서 수평선상으로 투공이 배치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金屬遺物の 과학적 保存處理과정과 浦項 玉城里 29호분 出土 頸甲의 復元 및 保存處理과정을 기술해 보았다.

이번에 復元된 포항 옥성리 고분군 출토 頸甲은 지금까지 출토된 자료 중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4세기후반대로서, 그 복원이 지닌 고고학적·기술사적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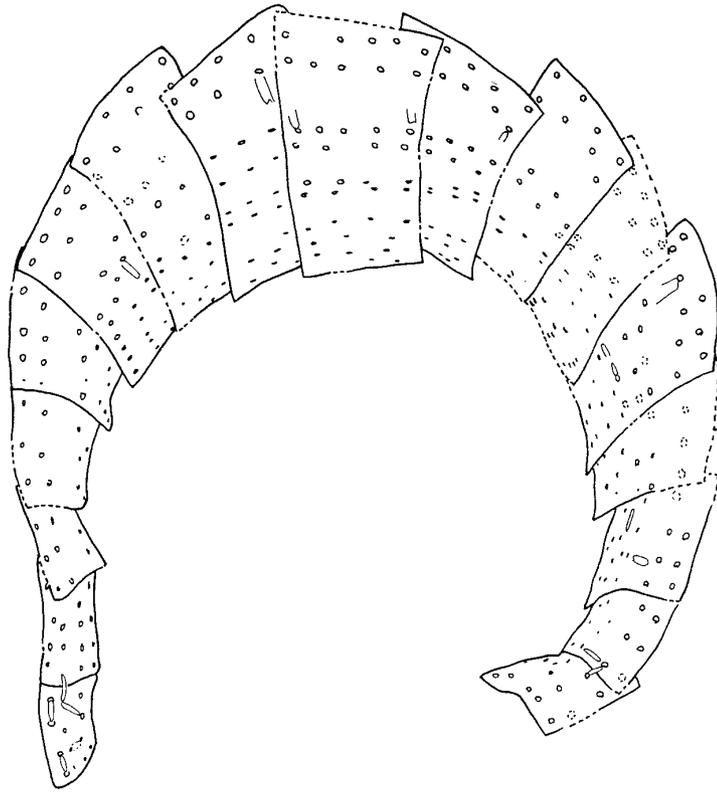
이 시기의 경갑이 출토된 예가 없어 비교분석을 통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현재까지 연구되어 발표된 경갑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와 기술사적 고찰을 토대로 경갑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또다른 4세기대 경갑자료가 발굴되어 이번 복원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浦項 玉城里 29호분 출토 頸甲에 대해서는 곧 발간될 포항 옥성리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보존처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약 실측도만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실측도와 고고학적 내용은 추후 발간되는 포항 옥성리발굴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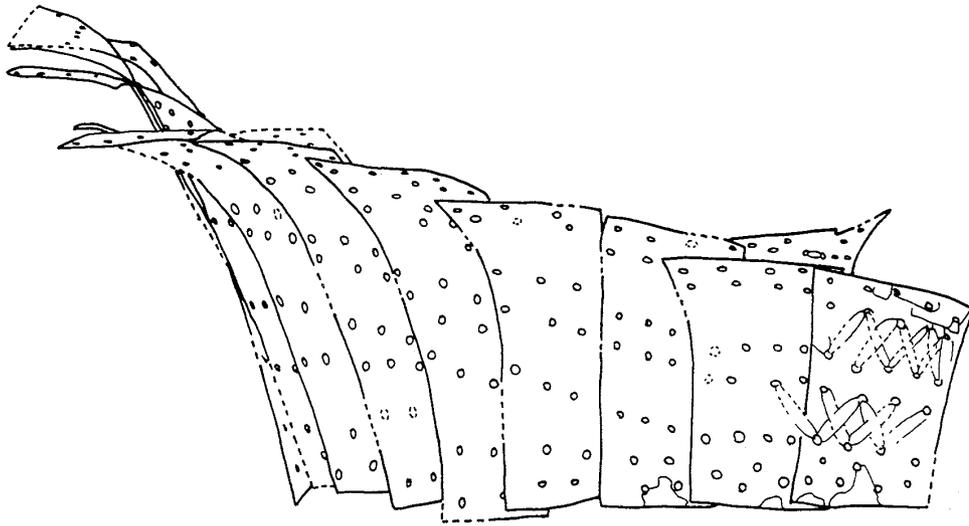
끝으로 장기간에 걸친 頸甲의 복원 및 보존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우리 연구원 자료실 여러분과 보존처리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參 考 文 獻 〉

- 경상대학교박물관, 1988, 『옥전고분군 I』.
———, 1990, 『옥전고분군 II』 M3호분.
- 김병주, 1988, 「부산시립박물관 소장 鐵板 갑옷의 保存復元處理」 『보존과학연구』 제9집.
- 김수기, 1989, 「금속유물의 보존복원처리과정」 『학술연구발표논문집』 3, 문화재연구소.
- 매장문화재연구회, 1993, 『甲冑出土古墳にみる 武器 · 武具の變遷』 제33회 매장문화재연구회.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동래북천동고분군 I』.
———, 1991, 『동래북천동고분군 II』.
- 이오희, 1981, 「가야시대 鐵製 馬冑에 대한 保存處理」 『문화재』 제14호.
———, 1983, 「蕨紋鐵製短甲 및 伏鉢形鐵製冑 保存處理」 『문화재』 제16호.
———, 1985, 「남원 월산리 고분출토 頸甲의 보존처리」 『문화재』 제18호.
———, 1987, 「합천 옥전고분군 출토 금속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鐵製短甲, 鐵製馬冑를 중심으로-」 『保存科學研究』 제8집.
———, 1996, 「금속유물의 과학적 수리복원화재의 과학적 보존 - '95 문화재 보존과학 연수 교재」, 문화재연구소.
- 한도식, 1995, 「포항 옥성리 고분군 발굴조사」 제2회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발표회.



〈도 1〉 경갑의 평면(약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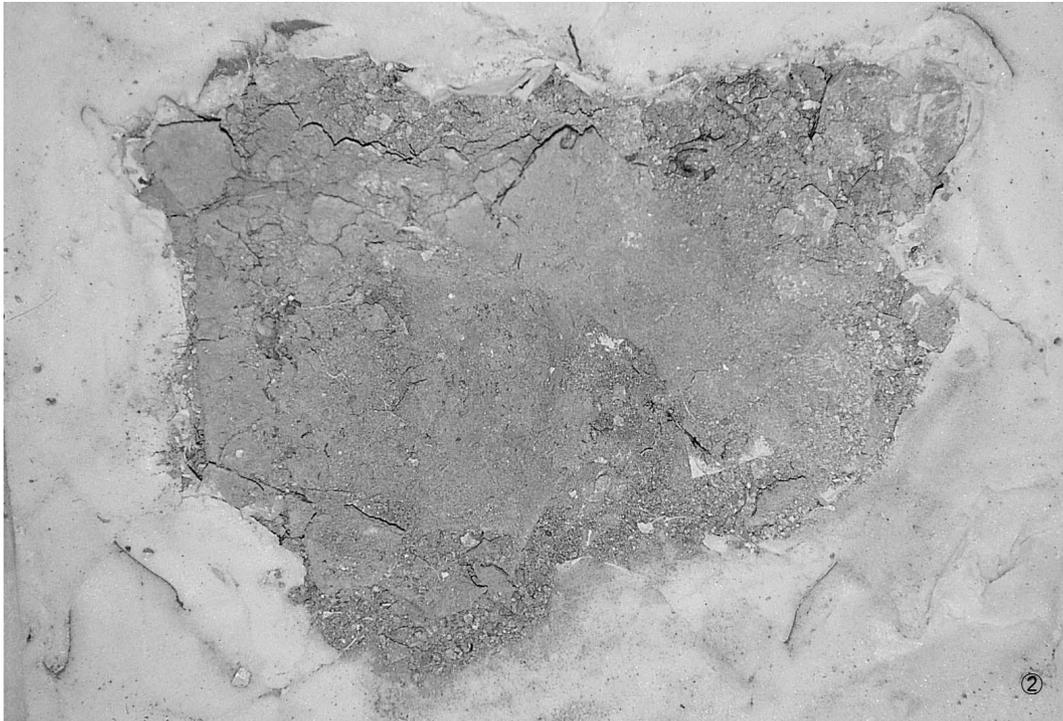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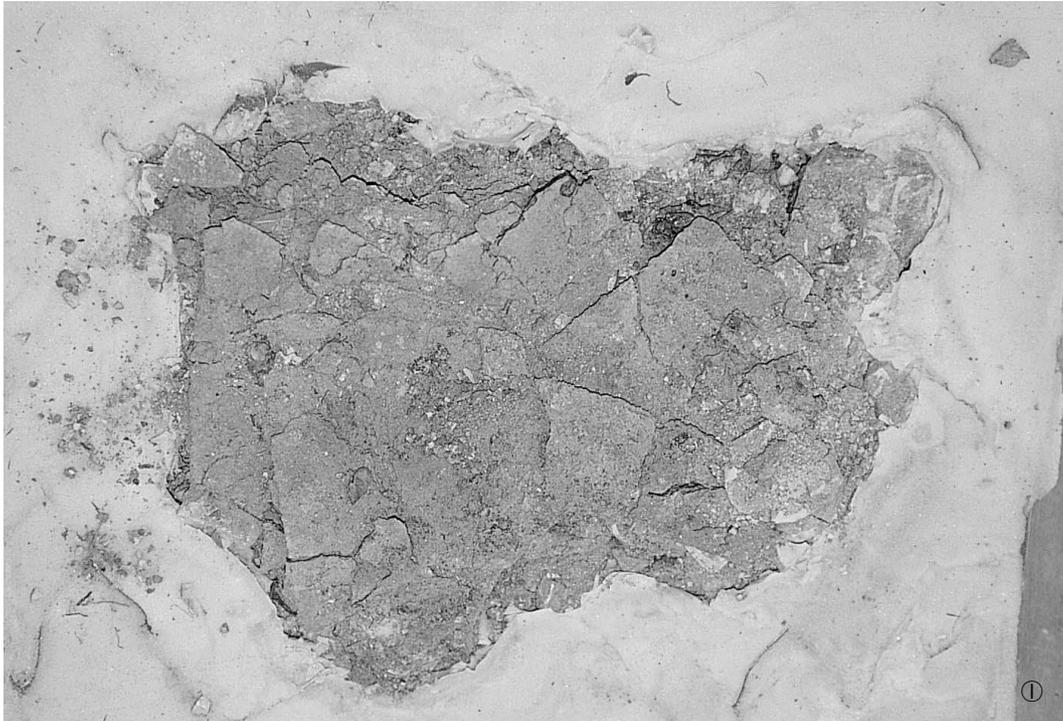
〈도 2〉 경갑의 측면(약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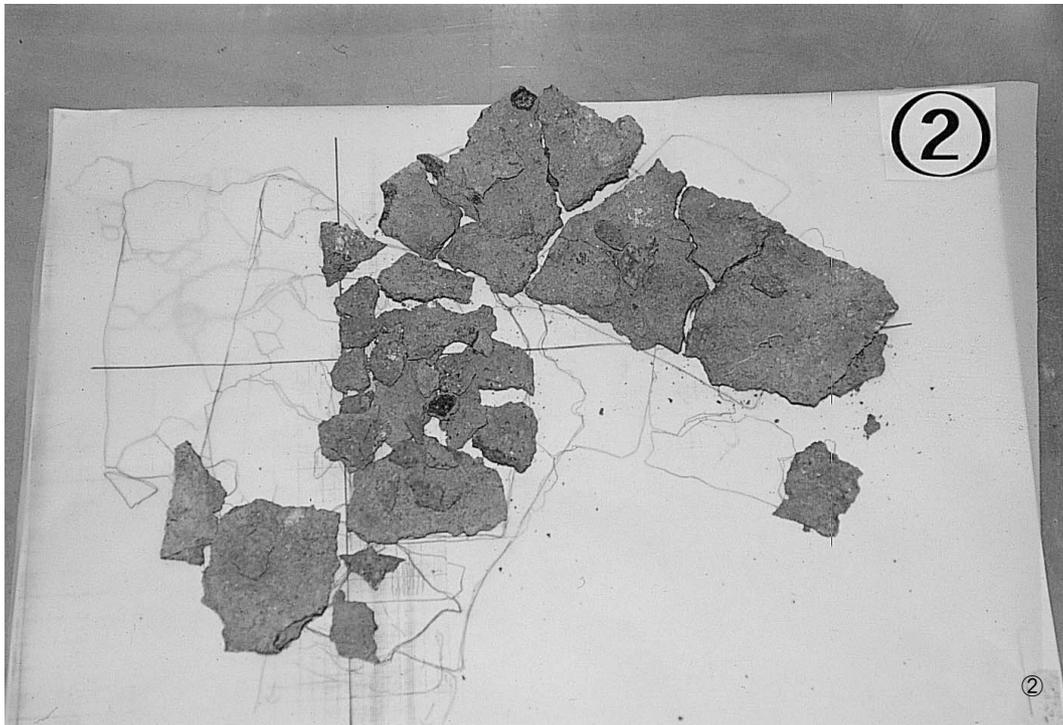
〈사진 1〉 대호 내 출토 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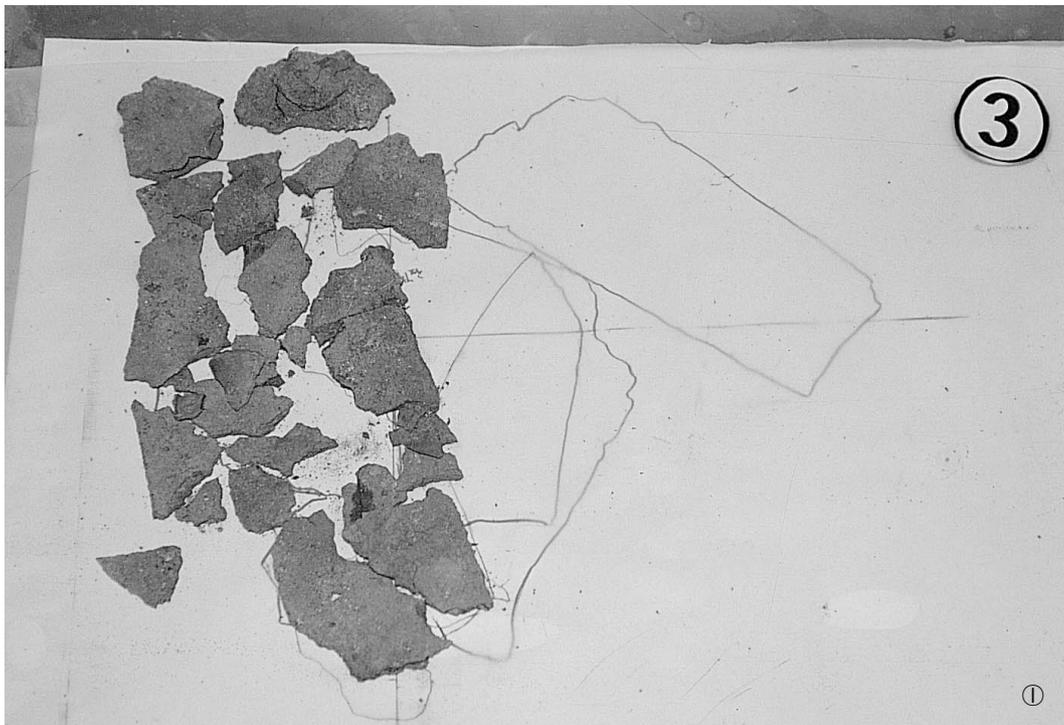
〈사진 2〉 ① 경갑출토 상태 ② 폴리우레탄폼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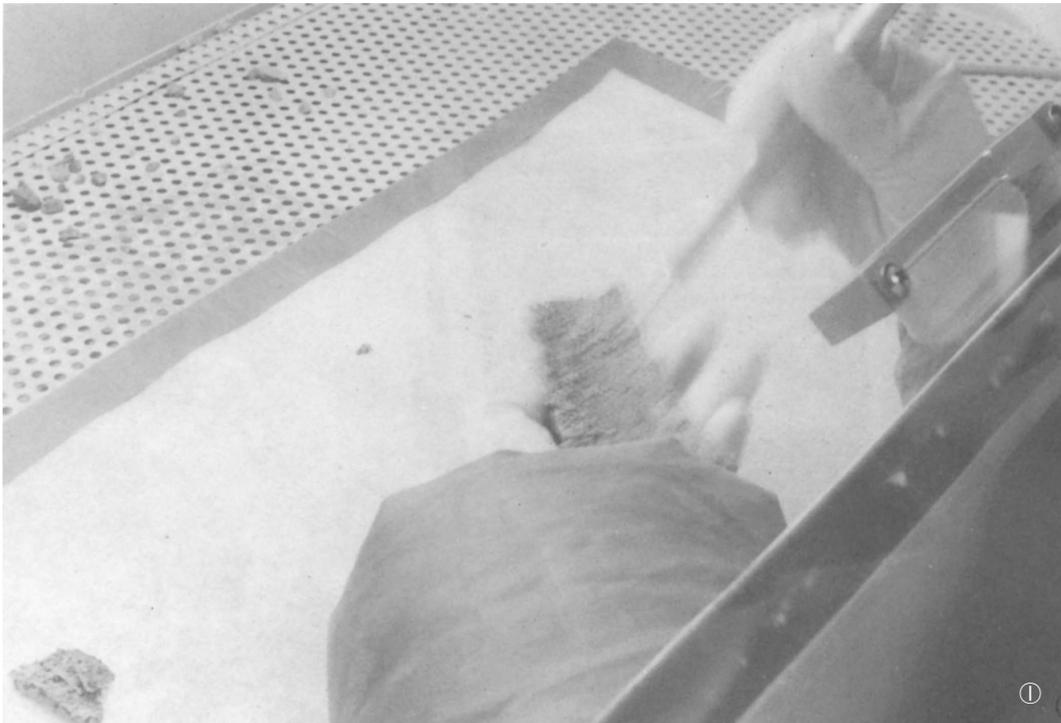
〈사진 3〉 폴리우레탄폼 해체후 상태



〈사진 4〉 지판수습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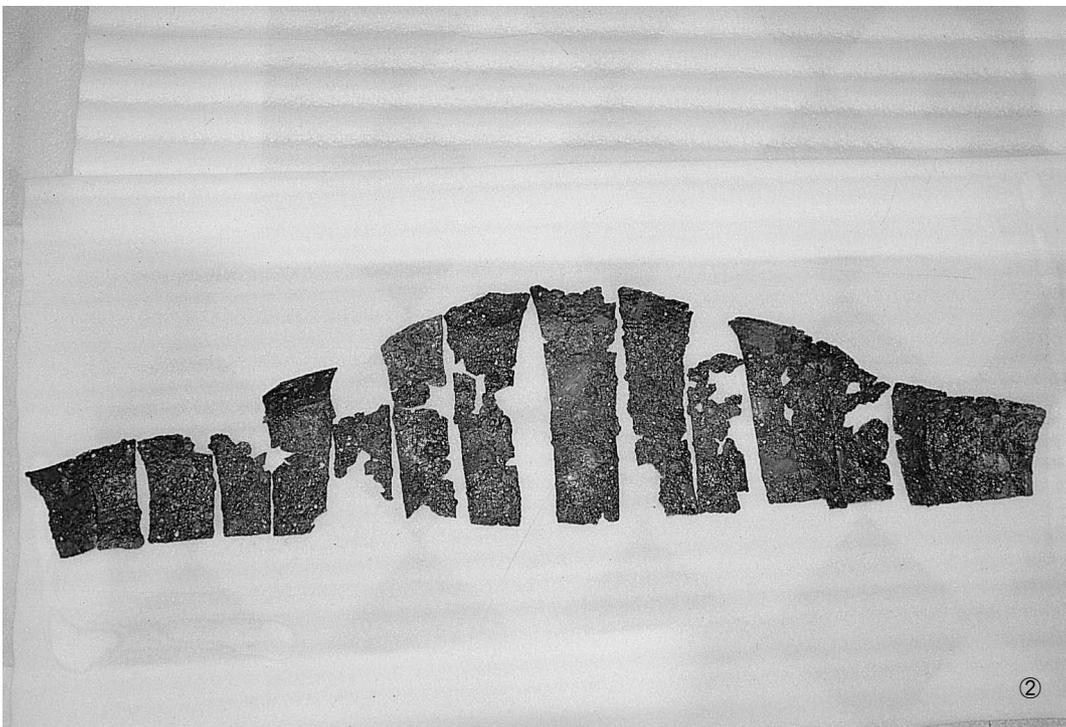
〈사진 5〉 지판수습 상태



〈사진 6〉 ① 녹제거 과정(Air Brasive) ② 탈염처리과정



〈사진 7〉 ① 건조처리과정 ② 경화처리과정



〈사진 8〉 ① 접합복원과정 ② 접합복원 완료후 상태



〈사진 9〉 ① 수지복원후 마무리작업 ② 경감복원과정



〈사진 10〉 ① 경감복원 완료후 평면상태 ② 측면상태



〈사진 11〉 ① 고색처리 완료후 상태 ② 오른쪽 1~3번째지판(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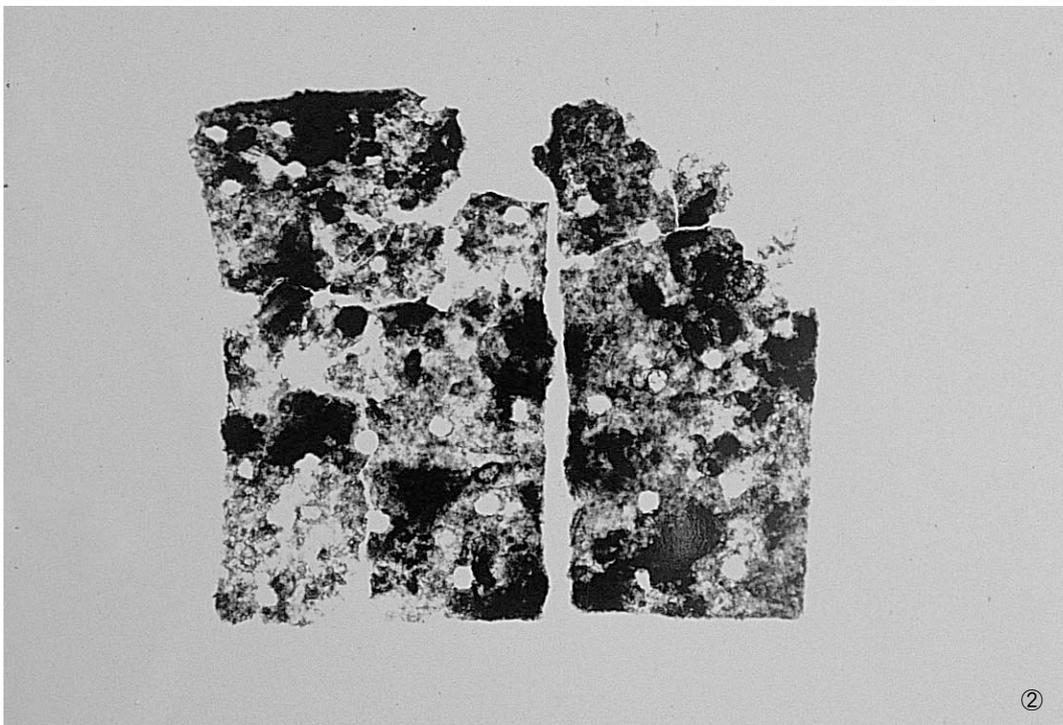
〈사진 12〉 ① 오른쪽 1~3번째지판(裏) ② X자상 횡결가죽끈흔(오른쪽 1번째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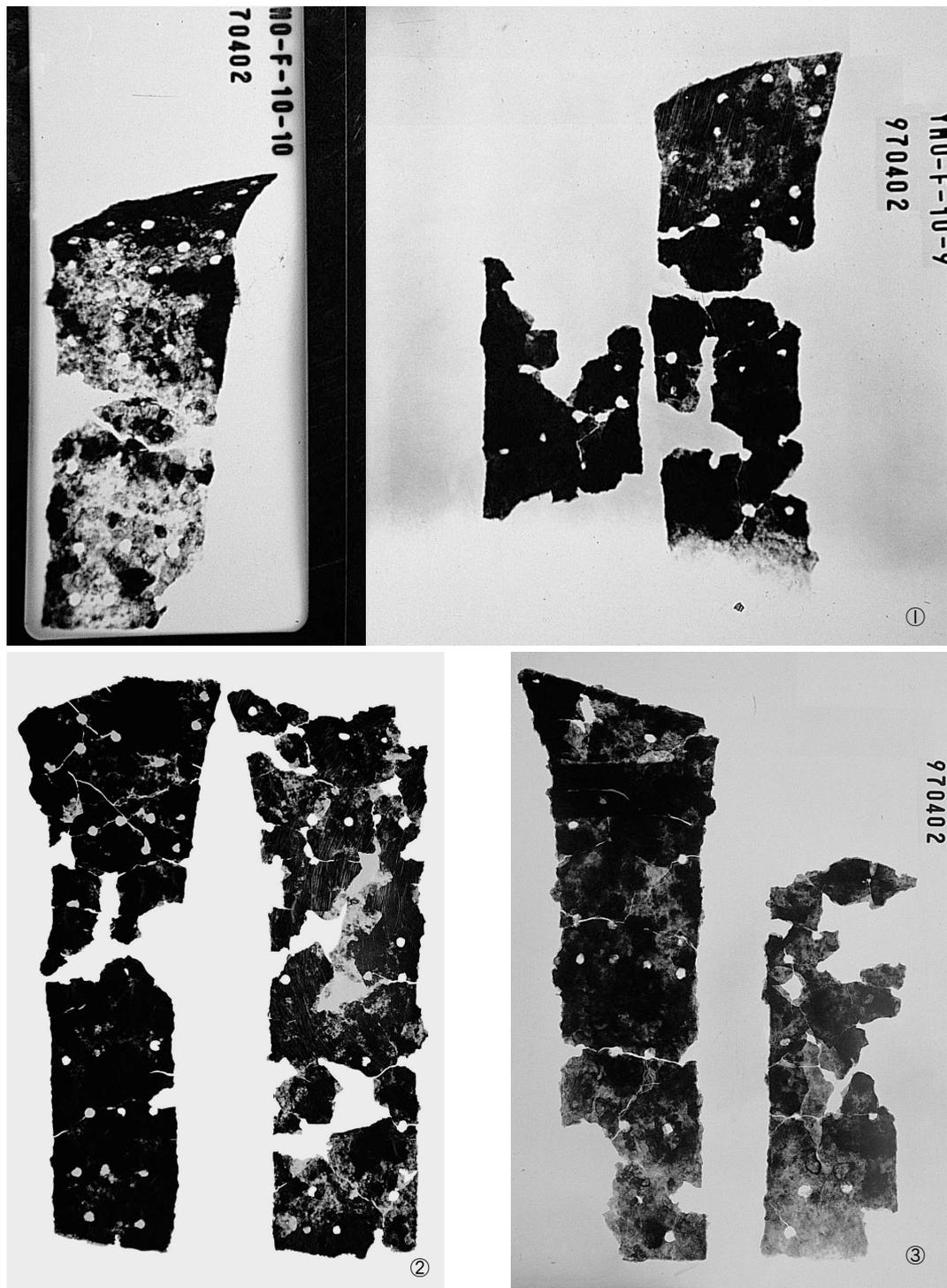
〈사진 13〉 ① X자상 횡결가죽흔(왼쪽5번째지판) ② 복륜가죽흔(오른쪽 1번째지판 상단)



〈사진 14〉 ① 복륜가죽흔(오른쪽 1번째지판 하단) ② 지판연결상태(왼쪽 1,2번째지판)



〈사진 15〉 X선 ① 왼쪽 1·2번째지판 ② 왼쪽 3·4번째지판



〈사진 16〉 X선 ① 왼쪽 5·6·7번째지판 ② 왼쪽 8번째지판, 正後方지판 ③ 오른쪽 8·7번째지판



〈사진 17〉 X선 ① 우측 6·5·4번째지판 ② 우측 3·2·1번째지판

嶺南文化財研究 7

인쇄일 : 1997년 11월 22일

발행일 : 1997년 11월 22일

편집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발행 : (사)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社國 嶺南埋藏文化財研究院
法人

The Y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702-25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496번지

전화 : 053-325-4741, 4743, 4744

전송 : 053-325-4742